

〈第三回 研究發表會 發表論文〉

# 契의 團體概念에 關한 史的考察

金 三 守

## 目 次

- 一. 序 言
- 二. 「會」로서의 契—李朝契帖을 中心으로
- 三. 「會」 또는 「會聚」로서의 契—實態調査(1961年)를 中心으로
- 四. 「契」=「會」의 文獻史的考察
- 五. 「會」의 音과 原義
- 六. 結 言

## 一. 序 言

(가) 李朝時代以來「契」에 關한 學說이 亂立을 極했음에도 不拘하고 이 分野처럼 何等的 論爭을 겪지 않고 지난 分野는 드물것이다. 이것은 解放後 이루어진 著作에 있어서도 共通의인 傾向을 保持하여 거기서 解脫하지 못하였고 亂立의 類型이 最大限으로 뻗친 지금 이 面에 對한 根本의인 批判없이는 契研究의 新生面은 거의 開拓될 길이 없을 뿐더러 學說로서의 體裁를 갖출수 없다는 것이 本研究를 試論하게 된 첫 出發點이며 契學說의 亂立事實의 認定 ①과 그 止揚에 本論文의 目的을 둔 것이다.

解放後의 契에 關한 文獻

### ○ 韓 國

- 1) 1949年 10月: 朝鮮銀行調査部·「經濟年報」內 第二部「私設無盡의 動向」(50~55面)
- 2) 1954年 月: 光州商工會議所編·「全南產業概況」(157~159面)

註 ① 著者는 契의 學說을 다음과 같이 分類하여 보았다.

(가) 契의 發生說의 分類

① 契=原始共同體說

(A) 契=原始共同體의 原生組織說—白南雲

(B) 契=原始共產體의 相互扶助說—李清源

(C) 契=原始共同體의 生産關係說—金柄夏

② 契=古代村落會議 乃至 宗教儀禮說

(A) 古代村落會議說—崔南善

(B) 古代宗教儀禮說—三品彰英

- 3) 1956年 6月: 金三守·「契의 社會經濟史的考察」(「財政」6月號, 68~85面)
- 4) 1956年 10月: 高承濟·「韓國經濟論」內 第8章第1節「韓國金融의 特殊性」(265~272面)
- 5) 1956年 10月: 洪璫植·「韓國社會에 있어서의 契의 生成過程小考」. 大韓金融團刊「金融」(內130~137面)
- 6) 1956年 12月: 崔範植·「契의 起源」韓國商業銀行行友會刊「天一」第13號(14~17面)
- 7) 1958年 7月: 金柄夏·「契의 史的考察」中央大學校經商學會刊「經商學報」第7輯(57~119面)
- 8) 1958年 9月: 金柄夏·「契」項·學園社刊「大百科辭典」(I)內 (300~302面)
- 9) 1958年 6月: 李丙熹·「우리의 原始民主制와 그 變遷」(「論文事典」內(354~375面), 이 論文中 契에 關說된것은 1954年 3月. 서울大學校「論文集」第1輯內「古代南堂考」(1~20面)의 內容과 一致하고 있다.
- 10) 1960年 6月: Sham Shu KIM, Die Entstehung der KÖ-Gemeinschaft in der koreanischen Sozial-und Wirtschaftsgeschichte. (S. 223~263). Taegu.  
金三守·「韓國社會經濟史에 있어서의 契의 成立」大邱大學 論文集 第2輯內(223~263面)
- 11) 1960年 12月: Sham Shu KIM, Die Bedeutung und Funktionen der KÖ-Gemeinschaft in der feudalen Sozial-und Wirtschaftsgeschichte Koreas. (S.1~36). Seoul.  
金三守·「韓國封建社會經濟史에 있어서의 契의 意義와 그 機能」. 韓國經濟學會刊「經濟學研究」第8輯內 (1~36面)
- 12) 1962年 3月: Sham Shu KIM, Das Stadium über die KÖ-Gemeinschaft. (S. 381~427), Taegu.  
金三守·「契에 관한 研究」 —그 過去와 現在— 大邱大學論集

③ 契=두레(徒)說—李丙熹

④ 契=嘉俳說—李覺鐘, 金柄夏

⑤ 契=香徒說—李芝峰, 李五州, 金瑋基, 河合弘民

⑥ 契=土地神의 祭祀와 結合된 地緣의 村落組織說—宮原兎一

⑦ 契=親睦의 會宴說—中村榮孝, 今村賴, 善生永助

⑧ 契=村落共同負擔의 共同解決組合說—李北滿

⑨ 契=組合說—白南雲, 荻野由之, 善生永助, 四方博, 藤戶計太, 李北滿, 河合弘民

⑩ 契=갈드說—豐田武

⑪ 契=鄉約說—河合弘民, 猪谷善一

第3輯內 (381~427面)

○ 日 本

- 1) 1951年 12月: 旗田巍·「朝鮮史」內 (155~156面)
- 2) 1951年 12月: 旗田巍·「契」項·世界歷史事典內 第6卷 (102~103面): 世界  
百科辭典內「契」項도 同一內容.
- 3) 1952年 月: 宮原兎一·「朝鮮의 宗教集團—契의 起源에 關하여」宗教研究1319
- 4) 1952年 3月: 三品彰英: 「朝鮮史概說」(119面)
- 5) 1953年 10月: 宮原兎一·「朝鮮의 契에 關한 一考察」宗教的機能을 中心으로  
一史學雜誌 (24~32面)
- 6) 1955年 3月: 善生永助·「朝鮮에 있어서의 契의 普及」朝鮮學報 第7輯 (9  
~115面). 이것은 1926年 朝鮮總督府調查資料 第7輯「朝鮮  
契」(善生)와 同人에 依한 1937年 朝鮮總督府行政資料로서  
「農山漁村에 있어서의 契」의 內容과 同一함.

1945年以後「共同體」(Gemeinschaft, Gemeinde, Community)에 關한 歐美의 研究를 볼것같으면 美國에서는 共同體의 「實態調査技術」이란 技術的面에 偏重되고, 獨逸에서는 「概念的面」에 지나친 傾向이 있었으나 이 두가지 傾向은 마땅히 合流統一 되어야하고 또한 그 可能性까지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 있어서 그 統一의 基礎를 닦았다고도 볼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文獻이 證明한다.

○ 美國에서의 共同體에 關한 最近의 文獻

- 1) August B. Hollingshead, Community Research: Development and Present  
Condition. 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XIII (1948)
- 2) Pauline V. Young, Scientific Social Surveys and Research. New York 194
- 3) George H. Hillery,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IN  
Rural Sociology XX 1950
- 4) Julian H. Steward. Area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195
- 5) Jessie Bernard, Social-Psychological Aspects of Community Study: Some Areas  
Comparatively Neglected by American Sociologists. IN: Britisch Journ

⑫ 契=納稅團體說

- (A) 契=高麗末戶布制起源說—善生永助
- (B) 契=李朝軍布制起源說—旗田巍

⑬ 契=封建的諸政策에의 對抗組織說

- (A) 契=封建的 惡政에의 對抗組織說—稻葉君山, 河合弘民
- (B) 契=前資本主義的 高利貸資本에의 對抗組織說—鈴木武雄

⑭ 契=自然發生說—秋葉隆, 河合弘民

(나) 契의 團體的分類

- ① 契=自治團體說

of Sociology II. 1951

- 6) Albert J. Reiss. A Review and Evaluation of Research on Community. A Working Memorandum Prepared for the Community on Social Behavior of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54
- 7) Conrad M. Arensberg, The Community Study Method. I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LX. 1954
- 8) Conrad M. Arensberg, American Communities. IN: American Anthropologist. LVII. 1955
- 9) Irwin T. Sanders. The Community. New York 1958

○ 獨逸에 있어서의 共同體에 關한 最近의 文獻

- 1) Nels Anderson, Die Darmstadt-Studie, ein informeller Rückblick. IN: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1956
- 2) Christian von Ferber, Die Gemeindestudie des Instituts für Sozialwissenschaftliche Forschung. am gleichen Ort.
- 3) Helmuth Croon. Sozialgeschichtsforschung und Archive. IN: Archiver VII 1954
- 4) H. Croon und Kurt Utermann, Zeche und Gemeinde. Tübingen 1958
- 5) René König, Die Gemeinde im Blickfeld der Sociologie. IN: Handbuch der Kommunalen Wissenschaft und Praxis. 1956
- 6) R. König., Einige Bemerkungen zur Soziologie der Gemeinde. IN: Kölner Zeitschrift
- 7) R. König, Grundformen der Gesellschaft: Die Gemeinde. 1958

이에 反해서 韓國에서의 共同體로서의 契의 研究를 볼때 그 實態調査의 技術의 問題도 問題거니와 根本적으로 概念의 研究가 缺如되어 있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 韓國에서의 契의 實態調査

- 1) 河合弘民: 「契」項 經濟大辭典, 1905年

(A) 契=宗教的 自治團體說—三品, 秋葉

(B) 契=生活協同團體說—崔南善

(C) 契=經濟的 自治團體說—豐田, (一般的通說)

(D) 契=非經濟的 自治團體說—中村, 今村

(E) 契=相互扶助的 自治團體說—旗田, 李北滿

(F) 契=行政的 自治團體說—河合弘民

(G) 契=組合的自治團體說—白南雲, 李清源, 善生永助, 四方博

② 契=組合團體說

(A) 契=갈트說—豐田

- 2) 朝鮮總督府：「慣習調查報告書」
- 3) 朝鮮總督府月報第1卷4.5號「面，及洞에 關한 制度」
- 4) 李覺鐘：「契에 關한 調査」1923年 朝鮮民政資料
- 5) 李覺鐘：「契에 關한 調査」（慶南道）1924年
- 6) 善生永助：「朝鮮의 契」1926年 朝鮮總督府調査資料 第7輯
- 7) 善生永助：「農山漁村에 있어서의 契」1937年 朝鮮總督府行政資料

○ 韓國에서의 團體概念(一般的)의 研究

- 1) 文定昌：「朝鮮農業團體史」1942年 12月
- 2) 四方博：「李朝時代に 있어서의 契規約의 研究」1944年 7月(朝鮮總督府調査月報 第15卷 7號)
- 3) 李丙燾：「古代南堂考」1954年 3月(서울大學校「論文集」第1輯)
- 4) 李丙燾：「우리의 原始民主制와 그 變遷」1958年 6月(「論文事典」內)
- 5) 李丙燾：「村落共同體의 名稱에 對하여」1962年 5月 서울大學校學林祭學術講演

契에 關한 團體概念의 研究의 全的인 缺如는 體系의 理解로서의 「契」學說을 極히 薄弱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結果는 「共同體」로서의 契의 一面뿐만 아니라 商品交換에 隨伴된 團體性으로서의 契의 史의 研究를 阻止하고 말았던 것이다. 「契」란 무엇인가?의 물음에 對해서 從來 그 起源을 말하는 境遇와 그 機能을 말하는 境遇로 大別되며 主로 (가) 契의 起源 (나) 契의 成立 (다) 契의 諸機能 (라) 契의 諸形態 (마) 契의 規約 (바) 契의 將來等等 一聯의 契研究의 內容이 거의 아무런 理由없이 그 一部分에 局限하여 論議 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契에 關한 體系의 理解가 未熟하다는데 基因하며 바로契學說의 亂立의 素地인 것이다. 따라서 學說의 亂立에도 不拘하고 論爭이 전혀 없었다는 事實도 또한 體系의 基礎의 薄弱性과 統一의 理解의 未熟 即 非體系性에 있었으니 從來의 契의 學說의 吟味와 團體概念의 史의 考察 없이는 이 以上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當然한 歸結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基本的인 亂立의 要因은 契概念 即 契의 團體概念이 本質의 으로 무엇인가에 對해서 전혀 研究를 하지 아니한데 있었다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 根本的 缺陷을 認識하자 契의 統一의 理解를 爲해서 우리들은 契의 本質的 概念이 무엇이며 그 團體概念이 무엇인

(B) 契=利益社會說—白南雲

(C) 契=相互扶助의 組合說—藤戶

(D) 契=組合說—一般的 通說

③ 契=村落團體說

(A) 徒→契=村落團體說—李丙燾

(B) 契=古代村落團體說—白南雲, 李清源, 金柄夏, 崔南善

(C) 契=宗教(土地神)中心의 地緣의 村落共同體說—宮原

(D) 契=(古代)封建의 村落共同體說—李北滿

④ 契=納稅團體說—善生, 旗田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團體概念의 研究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獨逸歷史法學派 「기이르케」(Otto von Gierke)의 「獨逸團體法」(Das Deutsche Genossenschaftsrecht. 4 Vols, Berlin 1868~1913)을 들지 않을 수 없으며 그의 第一卷: 「獨逸에 있어서의 團體의 法的 歷史」(1. Bd. Rechtsgeschichte der deutschen Genossenschaft)와 第二卷: 「獨逸에 있어서의 團體概念의 歷史」(2. Bd. Geschichte der deutschen Körperschaftsbegriff)가 가장 重要하며 1902년의 「人間的結合體의 本質」(Das Wesen der menschlichen Verbände. 1902) 등으로써 「法律의 諸形態를 理解하기 爲해서 또 法律生活과 全文化生活과의 사이에 存在하는 不可不離의 關係를 證明하기 爲해서 「團體」의 法的側面과 同時에 그 文化史的, 經濟的, 社會的, 倫理的側面까지도 學問的으로 徹底히 考察」<sup>2)</sup>한 것이다. 「기이르케」의 主著가 나타난 時代를 前後해서 말크團體(오늘날의 表現)에 關한 所謂 原始農業共同體로서의 말크共同體(Markgenossenschaft)의 研究, 露西亞의 農業共同體로서의 「미이르」(Mir), 印度村落共同體의 調查研究 古代로오마의 共有地에 關한 또는 自然民族의 實態調査를 通한 古代社會論 等等 共同體問題를 中心으로 前資本主義社會에 關한 또는 資本主義成立과의 關聯下에서 가장 多岐한 論爭이 集積되었고, 「기이르케」에서의 團體(Genossenschaft, Körperschaft, Korporation)의 뜻은 「F. 텐니스」의 「共同社會와 利益社會」(Gemeinschaft u. Gesellschaft. Grundbegriffe der reinen Soziologie. 1887)에 整理되면서 오늘날의 共同體(Gemeinde)研究에 그 줄기를 뻗치고 있다. 그러나 共同體研究의 意味는 非但 「共同體」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豊富한 前資本主義論爭의 基礎가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廣範히 各學問分野와 關聯되어 왔다는데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韓國에 있어서의 共同體로서의 契는——이 表現은 여기서 처음으로 擧論되는 것이지만——韓國經濟史의 全分野에 基本的으로 놓여있는 問題인 同時에 前資本主義論爭에 關한 廣範한 各分野와 連結되는 中心의 問題인 것을 確信한다. 「共同體」로서의 契가 무엇인가? 라기보다도 契自體의 團體로서의 本質概念이 무엇인가를 究明함으로써 韓國의 特殊한 共同體의 概念을 들어낼 수 있고 또한 들어내야한다. 왜냐하면 從來의 契學說에서 이미 許多한 Markgenossenschaft, Mir, 鄉約, 또는

(다) 契의 本質의 機能成立의 時代設定의 分類

- ① 契=原始共同體段階成立說
- ② 契=新羅時代成立說
- ③ 契=高麗時代成立說
- ④ 契=李朝時代成立說

(라) 契의 將來에 關한 見解의 分類

- ① 契=存續說
- ② 契=消滅說

以上の 分類에 依하면 發生說의 分類만 보더라도 筆者를 除外하고 19說에 다가 이

中世길드 等과의 比較——嚴密히 말해서 거기서의 知識을 比較經濟史란 美名下에 契에 對하여 强壓한데 지나지 않았으나——는 끝났던 것이며, (極히 素朴한 形式으로) 끝내 研究되지 아니한것은「契」그 自體였던 것이다. 하물며 Markgenossenschaft, Mir, Guild에 對한 前說이 거의 通用되지않는 오늘날<sup>②</sup> 거기에 立脚하여 契를 說明한 內容은 이미 一顧의 價値조차 없음은 勿論이다. 契의 團體性이 무엇인가를 묻는것은 契의 科學的 研究의 出發이며 決코 오늘날의 問題는 아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면에 對한 研究가 全無하다는 것은 實로 怪異한 일이며 나아가서는 契研究의 基本史料로서의 契帖을 보지 아니하였음은 더욱 怪異한 일이다. ——四方博教授단을 除外하고는——, 契의 團體概念을 다루게된 들째 理由는 여기에 있다.

(다) 筆者는 過去 前述한바와 같이(韓國에 있어서의 契의 文獻參照) 四篇의 契에 關한 論文中 三篇은 獨文으로서 發表하였으며 이 三篇에 依한 研究가 끝남으로써 必然的으로 到達한 結論이며 나의 契研究로서는 마지막 分野에 屬한다.

## 二. 「會」로서의 契—李朝契帖을 中心으로

契가 가장 發達한 것이 李朝時代 였던 만큼 契의 「團體」로서의 本質概念에 關해서도 許多히 論議되어 왔음이 事實이나 日帝時代以後의 「契」研究者는 이 面에 對한 認識을 繼續 深化 시키지 못했던 關係로 오늘날의 契學說의 皮相的解說을續出케 한 原因을 形成하게 되었다. 왜 그러냐하면 契의 諸機能의인 面에 對해서 너무 分散的으로 그리고 表象的으로만 觀察하였기 때문에 綜合하여 무엇이 이것의 本質的이며 本源의인 機能인가? 무엇이 分派의이며 派生的機能인가?를 識別하지 못했고 그 機能識別의 基礎에 놓여 있는 契의 團體概念의 究明이란 거의 認識밖에 있었으니 體系的인 叙述이 不可能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研究者의 認識과 方法에서 主觀的으로 制約된 것이었으며, 決코 史料안에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아

에 關係한 韓人 約 12名(延), 日人 約 19名(延)이며 如何히 分裂되었는 가를 알수 있다.

註 ② F. Tönnis, Gemeinschaft u. Gesellschaft: Grundbegriffe der reinen Soziologie (1887), 2. Aufl. (1912) darin. Vorwort.

註 ③ 오늘날 獨逸經濟史家나 法制史家는 거의 舊說로서의 原始農業共產體로서의 Markgenossenschaft說을 否定하고 있음을 注日해야하며 Mir, Guild에 對한 原始社會起源說도 마찬가지다. 다음 Markgenossenschaft에 關한 舊說批判文獻을 들겠다.

A) Max Weber, Wirtschaftsgeschichte: Abriß der universalen Sozial- und Wirtschaftsgeschichte. 1923

B) Friedrich Lütge, Die Agraverfassung des frühen Mittelalters im mitteleuropäischen Raum. 1937

C) Heinrich Bechtel, Wirtschaftsgeschichte Deutschlands. 1. Bd. 1951

D) Friedrich Lütge, Deutsche Sozial- und Wirtschaftsgeschichte. 1952

니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이리하여 이 契의 團體概念의 研究는從來無視되었던 本來的이며, 基本的인 問題에 대한 解明인 것이다.

契의 團體로서의 本質概念이 爲先 무엇보다도 李朝時代의 文獻<sup>①</sup> 가운데서 볼수 있을 뿐더러 거기서 부터 整理함이 正當한 것이다.

鄭東愈(1744~1808)

「我國舊語以衆人之同事結聚者稱契, 蓋契合之義也, 故中外坊名稱以某坊某契也, 乃見義之蘭亭序有修稷事之語, 不究修稷之爲何耳, 認作東俗結契之例遂改契爲稷而契會則稱稷會」<sup>②</sup>

鄭東愈의 文章에서는 契는 우리나라의 古語이며 「結聚」 또는 「契合」이라 보고 王羲之에 依한 蘭亭序의 修稷事란 말이 무엇을 뜻한 것인가를 充分히 講究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結契」의 事例에 關聯지워서 「契」를 「稷」로 改變하여 「契會」를 「稷會」라고 稱하였다고 한다. 事實은 「契」가 옳고 「稷」는 옳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契」나 「結契」나 「契會」는 모두 「以衆人之同事結聚」라는 뜻이며 本來 「契合」(Verbindung)의 뜻이라고 한다.

「中外坊名稱以某坊某契」라고 한것에는 李太王二年(1865年)에 編纂을 始作한 六典條例 卷之四에 있는 行政單位로서 法制化된 契 即

「中部八坊九一契, 東部七坊四三契, 南部十一坊七一契, 西部九坊九一契, 北部十二坊四四契」

를 生覺할 수 있으나 이는 年代의으로 晝永編보다 後世代이며 차라리 李睟光의 芝峰類說(1614年)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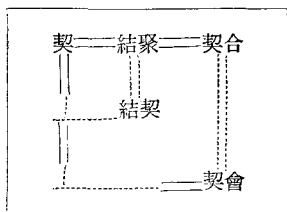
「我國之俗凡中外鄉邑坊里皆作契」와 關聯 시켜볼때 共同體의 內容으로서 自治的 組織이 行政的單位로 넘어가는 過渡的一面을 窮知할수 있는 것 같다.

註 ① 李朝時代 契帖 은 다음과 같은 것이있다.

- |   |   |
|---|---|
| ○ 東幕里大同稷案(1882),                              | ○ 一心契(1893)                                 |
| ○ 密陽補民稷節目 <sup>1823</sup> <sub>1883?</sub> ,  | ○ 船村契防節目 <sup>(1880)</sup> <sub>1820?</sub> |
| ○ 禁松契座目 <sup>(1778)</sup> <sub>1838?</sub> ,  | ○ 松稷完議(1799前)                               |
| ○ 沈氏山下里稷案 <sup>(1884)</sup> <sub>1824</sub> , | ○ 板子契(1744),                                |
| ○ (爲親聘慰稷)座目(1812),                            | ○ 爲親稷約文(1841)                               |
| ○ 爲親契約文(1876),                                | ○ 萬年契(1877)                                 |
| ○ 修契約文(韓末),                                   | ○ 倉隅里莎草契(1870)                              |
| ○ 店豆村莎草契(1870),                               | ○ 東陽(申氏)門會錄(1766)                           |
| ○ 族稷座目(尙州朴氏族稷)(1777),                         | ○ 宗稷案(申氏)(1826)                             |
| ○ 金海金氏花樹契案(1904),                             | ○ 花崗契案(1826)                                |
| ○ 重修文會稷帖(1741),                               | ○ 槐院稷帖(1716)                                |
| ○ 文房稷 <sup>1843</sup> <sub>1783?</sub> ,      | ○ 補仁稷帖 <sup>1859</sup> <sub>1799?</sub>     |



鄭東愈의 見解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



이것은 契=聚로 되고 契會=契會이니 「모임」이란 뜻以外에 없는것 같다.

그러나 「契會」란 表現은 여기서는 「契」와 「會」가 結合되어 한單語로 나타나 있으나 반드시 結合되어서 나타난것이 아니며 「會」가 바로 「契」를 代表해서 表示되었으므로 「契會」=「契」=「會」의 關係

를 알수 있다. 그 事例는 다음의 李朝契帖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① 「湖社會重修序」(時代不明)(서울大學校圖書館古 5129~41)

○ 春秋兩社不速而成會

여기의 「會」는 動詞의 뜻이 아니라 名詞로 되어 있다는데 注意해야한다. 그러나 이 契帖의 뒷面에는 「會員」도 「社員」도 아니라 바로 「契員」이라하여 그 參加者名單이 붙어 있으니 「契員」=「會員」이며 「成會」는 바로 「成契」이니 「會」는 바로 「契」와 같이 使用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槐院新參同會錄跋」一丙申, 肅宗 42年 2月 12日(1716年) 서·大·圖:古 5129~42, 이 契帖은 「槐院契帖」으로 表에 써어져있는 것이 內容에는 「槐院新參同會錄跋」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槐院契帖」은 丁若鏞(1762~1836)의 「雅言覺非」안에 收錄된 後述하는 「契」에 關한 記事에 나타난 것의 先行形態이나 여기서의 新參同會는 새로 槐院(承文院)에 入參하게된 人士들의 「契」인것에 틀림이 없다. 뜻은 다르지만 「參同契」도 있고 「三洞契」<sup>③</sup>도 있다. 「參同契」는 眉巖柳希春(1513~1577年)의 「眉巖日記草」안에 보인다.

(가) 眉巖日記草(一) 戊辰 2月 17日<sup>④</sup>.....借參同契二冊于權沃川詠而來,

- |                        |                |
|------------------------|----------------|
| ○ 香山齊契案(1869),         | ○ 金蘭契帖(1872)   |
| ○ 十二會座目(1902),         | ○ 五一櫻(1903)    |
| ○ 湖社會重修契帖(時代不明),       | ○ 草田結社(韓末)     |
| ○ 乙卯甲復錄(花甲契)(1629),    | ○ 辛酉生庚會帖(1802) |
| ○ 筆契,                  | ○ 完議           |
| ○ 鄉約交規,                | ○ 鄉約契帖         |
| ○ 六洞節日,                | ○ 完文(社民節日)     |
| ○ 裳谷八里孝契鄉約座目,          | ○ 裳谷里面鄉約契座目    |
| ○ 金龍寺門會約條,             |                |
| 이 以外에 約 三十卷程度 있으나 省略함. |                |

註 ② 鄭東愈「書永編」第三

註 ③ 「三洞契集註」는 基本史料의 하나로서 現在 國民大學圖書館에 所藏되어 있음.

○ 「喜觀參同契」一曹南冥常喜觀參同契以爲極有好處有補於爲學凡著述多用其語(行狀)(大東韻府群玉 卷之十四 425面)

註 ④ 柳希春, 「眉巖日記草」(一) 130面(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刊, 1936年 3月)

(나) 眉巖日記草 (一) 戊辰 2月 19日<sup>③</sup>……參同契頃者來自權沃川今得披覽……이「參同契」의 內容은 「日記草」만 으로서는 알 길이 없으나 「同年會」《日記草(二)381面》·丁酉司馬同榜會·《日記草(二)386面》·洞鄰之契香徒之會《日記草(四)·71面》等契=會의 諸事例에 비추어 「參同會」로 表示될 수 있고 「槐院新參同會」는 「槐院新參同契」라고 볼 수 있다. 卽 會=契인 것이다.

③ 「辛酉生庚會帖」壬戌純祖二年(1802年) 서·大·圖 古 5129~43이 「會帖」(契帖)의 「立議」에서 다음과 같은 記事를 볼 수 있다.

- 一. 契員中有吉慶則各員躬進相賀事
- 一. 契會時酒無過一盆湯水無過三盆事
- 一. 契物自明秋五兩式折用事

……等으로 規約되었다. 本來 辛酉生庚會이므로 「會員」, 「會」 「會物」等으로 表現될 듯 한데 「契員」 「契會」 「契物」로, 되었으며 이것은 「會」로 表示된 「會帖」=契帖에는 거의 이와 同一한 樣式을 取하고 있다. 「春秋二會」 「春秋此會」 「一年十會」라고 表現된것은 「契」의 뜻으로서 「會」를 使用했다고 볼수 있고 特히 記錄中の 다음 一節에서 보는 바와 같이 「結契爲會」라고 한데 이르러서는 契(=契)가 「會」라는 團體의 意義를 表現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以同庚之人設同庚之契者其亦人情之所不能已者乎, 噫人之併一世共一國幸也, 若同歲而生同鄉而居同志同老於太平者幸之又幸也, 凡結契爲會刊名爲帖」 또 한가지 注目 할것은 이「會」가 漠然한 無根據한 것이 아니라 그 源由를 中國의 「九老會」·「耆英會」·「同庚會」 등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契」=「會」의 究明에 있어서 꼭 밝혀야 할 하나의 問題는 이 問題인 것이다.

「昔白香山在洛與高年者八人遊, 時人謂九老會, 慕而圖之傳于世, 宋與洛中諸公繼而爲之者再矣……一日悉集士大夫老而賢者於韓公之第, 置酒相樂賓主凡十有二人圖形於妙覺僧舍因謂耆英會路公又作四老同庚會……」

註 ① 白香山=唐의 白居易를 말하며 字는樂天. 『白歸後居香山與詩僧如滿結香火社自號香山居士』(辭海 930面)

註 ② 「九老會」가 宋代에 있었음은 다음 「事文類聚」에서 보는바와 같다. 九老會=事文類聚『宋李文正公, 罷相居京師, 年七十一, 張好問八十五, 李運八十, 宋琪, 武允成皆七十九, 僧贊寧七十八, 魏石七十六, 楊徽之七十五, 朱昂與成同庚, 作九老會』(辭海 53面)

註 ③ 耆英會=『宋文彥博留守西都, 集士大夫老而賢者於富弼之第, 置酒相樂, 賓主凡十有二人, 時人謂之洛陽耆英會, 而夢溪筆談則作者年會關係十三人』(辭海 1080面)

中國에서의 「會」는 大體로 親睦의인 것으로서 非但 이 契帖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의 「嘉慶庚會」帖에서도 晉의 「蘭亭會」, 唐의 「香山會」(香火社의 뜻), 宋의

註 ⑤ 柳希春, 前掲書 (一) 130面

「洛社會」에 그 原由를 들고 있다.

④ 「嘉陵庚會」

⑤ 「金龍寺門會約條」 서·大·圖. 古—5129~28內

⑥ 「十二會座目」 壬寅光武6年(1902年) 서·大·圖. 古—5129~59

⑦ 「東陽(申氏)門會錄」丙戌, 英祖 42年(1766年) 서·大·圖. 古—5129~28

⑧ 「重修文會楔帖」辛酉, 英祖 17年(1741年) 서·大·圖. 古—5129~34

等等 許多한 事例가 있으며 앞서 말한 「會」가 中國에서 使用된 것으로 親睦의 機能이 主로 되었으나 여기서는 同甲親睦뿐만 아니라 血緣의 宗族의 團體로서 또는 商業에서의 「客主會」等(後述) 거의 契機能의 全分野에 걸쳐 「會」表示가 펼쳐있음을 注意해야 한다.

그러므로 「契」가 「會」였다는것. 또는 「會」·「契」가 같은 뜻으로 混用되었다는 事實을 認定할 수 있다. 卽 人間의 結合=團體이며 物的 結合을 直接으로 意味하지 아니 하였다.

「己卯甲契錄」(花甲契)—(己巳·仁祖7年(1629年)·朝鮮經濟文庫 B, 50~14)——의 契概念의 規定에는 鄭東愈와 같이 蘭亭修契가 韓國에서의 契(=契)와 無關하다는 것을 指摘하고 또 鄭東愈에서는

「以衆人之同事結聚者稱契也」

라고 한데 對해서 이 「甲契錄」에서는

「其會者乃鄉里聚會也」

라 하였으니

契=會=結聚=聚會

의 圖式이 可能하다. 또 위에서 말한 唐의 「九老會」·宋의 「耆英會」·「眞率會」를 契와 類似한 것으로 보았으며 全的으로 中國의 「會」에 그 源由를 求하지는 아니 하였으므로 中國의 「會」系列을 全的으로 否定하지 않으나 根源的으로 韓國의 源由를 찾아 내야 하는것 같다. 卽

「契會之作不知起於何時也, 或謂蘭亭修契是也, 此不然, 蘭亭所謂契卽上已祓禊之事也, 與今之契不同也, 蓋古人上巳及社有會飲之俗此近乎契矣, 然其會者乃鄉里聚會也, 非特相結也, 所會之日又天下所同也, 獨唐九老會宋之耆英會眞率會是契之類也, 特不名之爲契耳」(乙卯甲契錄)

〔註〕眞率會—東晉時拜官者須供饌以宴客羊曼拜丹陽尹時依例爲之, 客來早者並得佳設, 日曼則漸罄不復及精隨客早晚而不問貴賤, 有羊固拜臨海守, 竟口皆美雖晚至者猶獲盛饌, 論者以固之豐腆不如曼之眞率, 見晉書羊曼傳, 宋時亦有設宴之例司馬光取羊曼事, 名曰眞率會, 呂侍講雜記「司馬溫公眞率會, 文潞公時以大尉守滄, 欲附名於其內, 溫公以其貴顯弗納也, 一日潞公伺其爲會, 戒中廚具

盛饌直往造焉，溫公笑而延之戲曰俗卻此合矣，文潞公即文彥博」(辭海 949面)

그러나 「契」=「契會」를 「會」=「聚會」의 뜻이라고 規定한 것은 丁若鏞이며 그는 한편 機能의 解釋과 團體의 解釋을 내리면서

(I) 契의 機能의 解釋으로서는 「牧民心書」卷之十七, 「平賦」條에

『昔人居官皆有補役錢，播在民間者又或監司以錢數萬買牛借民者其始也民皆設契殖錢(合錢取利者名之曰契)』

라 하였으며 「合錢取利者名之曰契」는 틀림 없이 契의 殖利의 機能을 나타낸 것으로 團體性을 意味한것은 아니다.

(II) 이에 對해서 그는 「雅言覺非」卷三에서 그 團體性에 言及하였다.

『契者潔也，鄭俗於上巳，采蘭芷祓除不詳謂之契，漢禮儀志，上巳官民皆潔於東流水上，洗去垢疢，潔祭之名也，今俗釀錢殖利，名之曰契，契字本無字，惟蘭亭帖坊本契，訛作契，因以襲之也，晉俗好契，王謝諸人共修契事，修謂重，修古事東人凡與象會飲，皆謂之契，同庚曰甲契，同年曰榜契，同官曰僚契，玉堂修契屏槐院裝契帖，此風相傳，鄉村據錢者亦皆名契耳，此等之契當名曰契，契者約也合也，顧名思義豈不允矣』· 앞서 말한 『合錢取利者名之曰契』는 여기서는

「今俗釀錢殖利名之曰契」로 되었고，

「東人凡與衆會飲皆謂之契」란 記事는 契=親睦會宴說을 樹立한 根據의 하나로 되었으며 錢의 錢단民族의 會宴發生說과도 有關한 것이었다. 團體性에 關係서는 「契者約也合也」라고 規定하였다. 따라서 丁若鏞의 機能의 解釋과 團體性의 解釋을 區分하지 않고서는 두가지의 規定을 理解 못할 것이다. 契의 殖利性은 本來的 機能으로서의 一部이며 「鄉村據錢」 또는 「合錢取息」에서 보는 바와 같이 物的關係의 基礎에는 人的 團體概念을 前提하였고, 그만큼 商品交換의 關係가 아직도 個人에의 分化를 充分히 하지 못한 現實의 反映으로서 나타난다.

이 事情은 契帖의 規約에서도 共通의인 事實임은 다음 史料에 依해서 알수 있다.

① 「東幕里大同契案」 壬午李太王19年(1882年) 서·大·圖. 古=5129~57 (그안의 規約의 一部中)

一. 春秋契錢曾以四分取利自本洞分用……

② 『(爲親睦慰契)座目』 壬申·純祖 12年(1812年) 서·大·圖. 古=5129~24~1 「每員正租斗式收合同心結契名曰爲親睦慰契……我僉員各盡其誠勳力修契逐年殖利以爲購慰之資」

③ 「文房契」癸卯(憲宗9年(1843)) (正祖7年(1783)) 서·大·圖. 古=5129~10

(그規約中에서)

一. 今此稷財每員各出肆兩自今年爲始限五年依座目輪次殖利

이機會를 利用하여 中國에서의 「契」「稷」「稷」의 表現이 어떤 內容인가를 大觀해 두기로 한다.

(I) 契=『約也, 券也, 說文通訓定聲, 「凡質劑之書券」(今言合名)』(辭海 372面)

稷=『修禊之禊或作稷王羲之蘭亭帖「修稷事也」』(辭海 939面)

禊=『亦作稷, 祭也, 見廣雅釋天』(辭海 984面)

(II) 契=『易繫辭』上古結繩而治後世聖人易之以書契』(康熙字典子丑集下大部)

이것들을 보면 「契」가 가진 本來의 뜻인 「約也」「今言合同」을 丁若鏞은 그대로 韓國의 團體性規定에 符合시켰다는것이 「稷本無字」인데도 「顧名思義豈不允矣」라고 하였으므로 明白하다. 또 한가지 指摘되는것은 中國의 用法으로서는 「稷」나 「禊」는 互相 轉意될수 있고 中國式에 따른 韓國에서의 表現方法은 實은 그어느것이냐 뜻에서는 別無差別이며 具體의 用法으로서는 「契」 또는 「禊」=「稷」中 어느것이랴 하나 契帖에서는 이 三字를 모두 使用하고 있는 形便이다. 그中에서도 「契」와 「稷」가 많고 「禊」는 「潔祭之名」으로 前二者에 比해서 뜻이 區分되어 적게 使用되고 있다. 契의 起源에 關해서 볼때 「稷」字는 生産에 關聯되었다고하고 「禊」字는 「祓除不詳」=물이의 宗教的儀禮와 關聯된다는 것으로 取扱하여 不知不識으로 三字를 다 「契」의 歷史와 意味의으로 關聯있는 것으로 認定된 것은 非一非再이며 이는 發生的解釋을 機能的解釋으로 옮겨 넣은데서 由來되었으니 ①『乙卯甲稷錄』에서와 같이 『不知起於何時也』라고해서 發生不明의 것으로 推進한다면 「禊」字는 使用制限을 안 받을수 없고 ② 또 丁若鏞과 같이 『稷本無字惟蘭亭帖坊本禊·訛作稷因以襲之也』라고 한 境遇에는 禊=稷이며 「稷」에 集中될 것이다. 더구나 「禊」·「稷」는 直接的으로 團體性的의 뜻과 無關하다. 實際各時代의 契는 一貫해서 이러한 「祓除不詳」의 宗教的儀禮의 機能을 共通으로 그 밑바닥에 가진것도 아니었다. 또 設令 그와 같은 면이 始源的으로 關聯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團體性的의 解明을 爲한 媒介로 될당정 그 自體가 團體性을 뜻하지는 않는다. 「禊」 또는 「稷」가 中國의 文風을 따른 餘韻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고 하면 爲先契의 音自體가 問題될 것이며 뜻은 그뒤에 나타나리라고 生覺된다. 「蘭亭會」를 「蘭亭會」라고도 한것을 보면 「稷」가 「會」로 될수 있었던 理由가 그뜻에 있다가 보나도 「契」란 音과 「會」란 音에 關聯되며 「稷本無字」라면 本來의 우리말을 이에 借字한 것이라고 보고 뜻은 차라리 「會」에 있다고 본다. 이 論文에서 主로 「契」字로서 統一的으로 表示한 것은 「契」·「禊」·「稷」의 위에서 본바와 같은 考察의 結果이며 鄭東愈·丁若鏞이 「契」字를 正當하다고 認定한 것에는 理由가 있다고 生覺된다. 一部論者에 있어서는 (中村, 今村, 善生)

『東人凡與衆會飲皆謂之稷』

에서「會飲之事」를 契와 結付시켰으나 이것은 團體의 機能의 一面에 나지지 않고 그것만으로서 團體性을 充分히 說明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分派의 諸機能의 全關聯을 分明히 把握할 수 있는 性質의 것도 아니다. 例컨대 會飲의 親睦의 機能에서 生産的, 殖利的인 社會的機能이 論理的으로 나오리라고는 生覺안되는 것이다. 차라리 團體性的 變遷과 거기에 隨伴된 여러 經濟的 및 經濟外的 要因들을 同時的으로 觀察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때

① 契는 古語이며 本來 無字라는 것.

② 團體概念的 把握에는「契」字를 中國의「契」·「契」字와의 關聯을 끊고

③ 「契」=「會」(會=회)의 面에서 그音과 뜻을 究明하면 거기에「契」의 團體概念이 나타날 것이라는 結論에 到達할 것이다.

「契」에 關한 李朝文獻에서의 第二類의 見解는 「契學說」에서 一般的으로 많이 引用되는 重要한 資料의 하나로서의 芝峰類說卷二의 다음 記錄이다.

「我國之俗凡中外鄉邑坊里，皆作契以相糾檢謂之香徒按輿地勝覽金庾信年十五爲花郎時人服從龍華香徒云今香徒之稱蓋本於此」

이것은「契」의 發生을 新羅香徒에서 보는 說까지 構成하였으나 各時代를 貫流한 團體性을 이것만으로서로는 전혀 알바 없을뿐만 아니라 全體「契」가운데서의 一部現象인 香徒契(=다음 李五洲의 文章에서의 喪徒)가 어찌해서「契」全體를 代表할 수 있으며 李朝의 殖利機能段階의「以相糾檢」이란 機能이 어찌해서 古代專制國家의 武士團體인 花郎=龍華香徒의 道德的, 倫理的, 信仰的, 修驗的機能과 關聯되는가에 關해서는 전혀 推測조차 할수도 없다. 다만 新羅香徒와 李朝香徒및 香徒契의 喪徒契에의 變化過程이 드러날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李朝時代의 一部契의 一部機能以外에 表示된 것은 없다. 따라서 李晬光의 文章에는 團體概念이 明白히 表示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五洲李圭景의「五洲衍文長箋散稿」內「香徒辯證說」에

「閭巷以米息利名香徒米又有香徒契之稱此似喪徒契」라 하였으므로「香徒」(米)

=「香徒」(契)=喪徒契라 할지라도 香徒米란 것이「以米息利」의 이름이니 이 李朝時代의 殖利性機能과 關聯될 뿐, 新羅의 香徒와는 機能的으로도 비슷한點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五洲의 規定인「相會殖利者謂之契也」(香徒辯證說)도 亦是 機能的解釋의 範圍를 넘지 못하면서「相會」(서로 모여서)란 團體性을 基盤으로 한 殖利性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契에 關한 第三類의 見解는 다음 契帖에서 보인다.

①「板子契」—甲申英祖 20年(1744年) 서·大·圖, 古—5129~21

『成一楔名之板子契，契者契於心契於德而若合於符契之謂也』

이것은 漢字로서의 『契』의 一般的인 뜻으로서의 「符合」을 基礎로 하고 全體를 形成하는 部分的結合을 契라고 한것에 틀림이 없다. 그 全體가 어떤 機能的 目的을 가지든간에 別相關없이 그結合의 精神的倫理的協同性을 強調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契를 精神協同體로 보는 一部學說(善生永助, 金柄夏)도 無根한 것은 아니나 이것은 위의 文章에서 보는바와 같이 契의 團體性(結合)의 派生的解釋에 지나지 않으며 本來契가 가진 것은 「結合」以外에 없는 것이다.

②『(爲親睦)修契約文』—韓末—서·大·圖, 古—5129—24~4에 는서,

『夫楔本於契，契源於誼是故漢之三英桃園之盟，晉之羣賢有蘭亭之會矣』

라하여 友誼=親睦의인 뜻이며 「會盟」으로서 中國風潮가 導入 되고 있는 것을 본다. 또

③「金海金氏花樹契案」丙戌純祖 26年(1826年) 서·大·圖, 古—5129—29에서

「楔者契也，所以一衆心而若合符契者也」

라하여 여기의 「契」亦是 板子契·親睦契 등에서와 같이 「結合」의 뜻이 粉飾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가지 文獻에서는 「楔」表示를 否定하고 「契」라고 斷定한데까지는 좋으나 「契」의 中國의解釋과 抽象的, 觀念的解釋을 넘지 못하고 韓國에서의 具體的인 團體性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못하였다.

〔小結〕

(A) 以上으로서 첫째 李朝時代의 契帖과 主要한 契에 關한 論者의 主張 가운데 그 團體性이 「結合」의 뜻 以外에 없으며 「mir」의 「世界」·「神聖」·「平和」等의 意味라든가 「Zadruga」의 「벗이되다」(druga는 債務를 지다라는 뜻도 있다)는 意味라든가 또는 「Bratostowo」의 兄弟關係의 뜻, 「Mark」에서의 「限界」 「境界地」等의 뜻과 같은 獨特性이 없고 「結合」乃至 「團體」以外에 다른 意味를 目的으로 包含하고 있는것 같지 않다.

둘째로는 契=會라는것, 即 李朝時代에는 「契」나 「會」가 같은 意味로 使用되어 併行하였던 것을 認定할 수 있는 것이다. 契를 全의으로取扱아니한 崔虎鎮博士의 「近代朝鮮經濟史」(1942年 10月 90~91面)에서도

「客主會」=「客主의 組合」(普通客主契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表示되었으니 이것은 李朝時代에 「客主契」가 「客主會」로서도 불리웠다는 証左이며 이것은 「負褒商會」라고 한것에 對해서도 마찬가지다. 그 解釋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結合」의 뜻이 表出되어 있다. 即

「商人이 그 結合組織에 있어서 爲先 그들의 特殊한 商人的目的을 保護하기 爲해서 結合하여 商業의 共同的統制와 促進을 圖謀하기 爲해서 共同的組合組織을形成하여 外國商人和 折衝하고 그들에게 從來 볼수 없었던 程度의 密接한 結

●  
 合에 依해서 그들의 商業資本家로서의 本分을 着實히 遂行하려 했던 것이다.」  
 (○○의 表示는 筆者의 記入)

(B) 「契」=「會」에 關해서 過去에 單한 사람만이 示唆적으로 말했다 뿐이며,  
 中村榮孝教授에 依한 「朝鮮經濟史雜考」(1930年 8月 靑丘學叢第1號) 안에서의 指  
 摘이다<sup>⑥</sup>.

『契는……普通 高麗末에 發生하였다고 하나 나는 그 由來는 더 오랜 것이며  
 어떤 機會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親睦을 爲해서 會宴을 했는 데서 發生하여  
 이에 契라든가 會라든 名稱을 붙인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共同體에 있어서의 共同組織과 相互組織을, 따라서 分業을 理解 못하고  
 團體性을 追窮할 수 있는 「契」=「會」를 把握할 만한 段階에서 機能的解釋을 내러  
 親睦의 會宴說로 偏曲하여 그 團體性究明을 拋棄했을 뿐만 아니라 機能的分析에서  
 當然히 나타나는 契成立의 問題를 契發生論으로 轉換함으로써 主觀적으로나 客觀  
 적으로 이 以上の 實證의 길을 스스로 막았다고 보아야 한다.

(C) 이와 같은 「契」=「會」는 바로 「契」, 「契 會」, 또는 그저 「會」로서 나타  
 나는 한편 「聚會」·「會聚」·「契聚」·「結聚」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 모두가 「結  
 合」이란 뜻以外에 아무것도 없으니 契는 集團性 結合性을 意味하는 本來的인 團  
 體概念이며 이 基本概念을 土臺로 해서 여러가지의 派生的形態 및 거기에 따른  
 機能이 附隨되었던 것이다.

① 自治의 行政單位로서의 典型的인 例는 李太王2年(1865年)編 六典條例안에 있  
 는,

中部八坊九十一契  
 東部七坊四十三契  
 南部十一坊七十一契  
 西部九坊九十一契  
 北部十二坊四十四契 이다,

② 「六典條例」에 앞서서 顯宗 4年(1663年)의 「漢城府北部戶籍帳」에는 (慣習調  
 査報告에 나타났음)」

阿耳古介契—9戶  
 行禧宮契—17戶  
 加佐洞契—38戶  
 水色里契—44戶  
 城山里契—59戶

註 ⑥ 中村榮孝, 「朝鮮經濟史雜考」 1930年 8月 靑丘學叢 第1號 132面



細橋里契—23戶  
合掌里契—89戶  
望遠亭契—142戶  
弘濟院契—16戶  
汝義島契—44戶  
延曙契—96戶  
甌山里契—41戶  
新寺洞契—32戶  
梁鐵里契—11戶  
末屹山契—20戶  
造紙署契—3戶

都已上合 652戶 (實은 682戶)<sup>⑦</sup>

- ② 商工業面에서의 典型的인 例, 非特權的인 契로서 客主會(契), 負襟商契 가 있었고 特權的인 契로서 六矣塵契 工匠契·貢人契等이 있었다. 또 六典條例內「中部長通坊」條에 商工契로서

「河順之契·昌塵行廊契·笠塵契·咸平主人契·粉塵中良之契·義城正契·石井契·琵琶洞契·鞋塵一契·二契·廣州主人契·西日世弘契·朴戒孫契·水標東邊契·方宗契·朴乃宗契·紙塵一契·二契·俞士益契·鹽塵契·方萬石契·辛亨孫契·朴已益守契·張萬戶契·原州主人契·清州主人契·貫子洞契·張仇談契·徐千壽契·昌塵中路契」

#### 「貢幣」에서

「牛皮契·筆契·貢人·生豬契人·漁夫契人·湖南襦衣契人·海西月課契·三南紙契·嫩蓼契人·沙器契人·染契人·東契人·貢馬契人·生獐契·狗皮契人·黍皮契人·紙油絲契人·毛物契人·毛氈契人·雜物契人·燠造契人·營繕軍契人·難禮契人」

#### 「六典條例」에서

「弓角契·鄉絲契·綿花契·彩色契·狗皮契·黍皮契·金契·鐵絲契·唐藥材契·製油絲典·關東蓼契·修理契·席子契·水鐵契·大小奴紙塵契·白絲紙塵契·公事紙契·別紋席子契·小麥契·竹契·索契·長木契·束注工契·鴨鳥契·灰契·炭契·襦紙衣契·方物席子契·紙衣契·刷馬契·黃楊木契·木契·生獐契·濟用監吐紬契·公事紙契·墨契」

- ③ 村落單位로서의 典型的인 例,

註 ⑦ 猪谷善一, 「朝鮮經濟史」 1930年 54面

- 松契 또는 禁松契——(「松契定議」·「禁松契座目」)
- 軍布契·鄉約契·里契 및 戶契——(丁若鏞, 牧民心書) 鄉約契帖
- 大同契——(東幕里大同契案)
- 「社民」 또는 「社會」——「完文」(成豐9年), 「左右栗追設使民節目」, 「湖社會重修序」

④ 血緣的인 團體의 典型的인 例,

花樹契——(「東陽門會錄序」「龍山勝會」「吾宗勝會」「金龍寺門會約條」「族契」)  
四寸契——「五洲衍文長箋散稿」

⑤ 親睦的인 團體의 典型的인 例

同庚會(「辛酉生庚會」「嘉陵庚會」)·五一契·輔仁契·鄉飲契·萬年契·金蘭契  
·文房契·(各契帖依據)

⑥ 相互扶助的인 例

爲親契·喪徒契·勞動契·歲饌契.

이 모든 李朝時代契帖에서 나타난 諸契의 여러 機能이 階級的 上下와 行政的 經濟的 區分과 統制力의 強弱, 殖利의 實物的·貨幣的인 것을 莫論하고 오로지 그 組織의 形態는 共通的으로 契=會의 團體性에 依한 自治的 機能과 殖利的 機能이 그 中核的 機能으로서 나타나 있음을 觀察할 수 있다. 團體의 自治機能은 그 自體 李朝時代에서 創生된 것이기 보다는 차라리 共同體의 初期의 形態 即 歷史的 段階로서의 「血緣共同體」에 遡及되지 않을 수 없고 共同體의 消滅에 이르기까지 持續되는 共同組織的 性格이다. 한便 殖利의 機能은 李朝時代에 훨씬 앞선다고도 아야하며 그 社會經濟史의 理由는

첫째: 殖利의 機能을 가졌던 新羅·高麗(特히 高麗)의 「寶」의 (高麗史·食貨志에 「寶者方言以錢穀施納存本取息利於永遠·故謂之寶」) 基本的 性格이 「存本取息」에 있었던 것이 李朝에 들어가서 消滅했을 뿐만 아니라 契에 吸收되었던 過程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殖利機能을 轉換契機로 한 寶의 契에의 轉形過程은 契의 成立(機能的)을 적어도 殖利機能에 注目하는限 高麗時代까지 遡及될 것 같다. 이 「寶」에 關한 定義가 丁若鏞의 「合錢取利者名之曰契」와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指目해야 한다. 이런 事例는 契帖에서 許多히 볼 수 있으며

1) 契穀以四十石存本事 (「(申氏)宗稷案」)

2) 契財以五分生殖事 (「金蘭契帖」)

3) 契穀以本色逐年長利取息爲資 (「節目」)

4) 鳩聚小財遂成一稷名曰爲親契樹本殖利逐年結据以爲養生送死之爲無憾之子之常徑. (「設契約文」)

等等의 內容을 볼 수 있으니 틀림없이 存本取息이다. 그러나 契의 如斯한 殖利性

은 爲先 時代의 으로 高麗朝까지 溯及될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이러한 殖利注을 社會에서 機能하것끔 한 社會經濟的構造에 源由 되므로 社會經濟的構造로 보아 高麗와 李朝가 同一한 카네골리(=封建社會)에 들어간다는 것이 契의 殖利的機能을 成立케 한 밑바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 「寶」의 消滅過程을 보면,

- ① 太宗九年 正月 辛酉 1409年 (太宗實錄 卷之十七)의 「常平寶」<sup>8)</sup>가 全羅道에 設置되어 糶糶制와 結付된 殖利機能을 發揮함으로써 救荒策으로서 나타났고 이것은 高麗李朝에서의 封建社會構成의 上下를 結付하는 財政政策으로서의 常平倉, 義倉, 社倉, 還上制度와 모두 關聯 되었던 것이며 殖利注이 가진 社會經濟的 意義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 ② 世宗六年十二月戊申 (1424年) (世宗實錄卷之二十六)의 「三色之寶」<sup>9)</sup>——여기서의 「存本取利」는 僧海宣의 戶曹에 對한 寺院建立의 獻議에서 그 세가지의 難點 卽「燒木之辨一也供給之費二也, 工役之錢三也」를 解決하기 爲하여 縣布三千匹을 基本삼아 「三色之寶」를 세워 米價의 騰落을 利用하여 賣買함으로써 利를 取하여 그 費用을 充當한데서 이룬한 것이다.
- ③ 世宗七年三月丙子(1425年) (世宗實錄卷之二十七)의 「忌濟寶」<sup>10)</sup>
- ④ 世宗九年四月壬午 (1427年) (世宗實錄卷之三十六)의 「立寶」<sup>11)</sup> 등이 李朝初의 「寶」이며 「寶」로서는 最終의인 設錄인것 같다.

그 機能에서는 「凡置米布存本取息以爲永久之用謂之寶」란 註가 붙어있어 이것은 「高麗史食貨志」內의 「寶」規定과 比較해서 거의 差異가 없는 것이다.

이 「寶」가 契로 넘어가는 乃至는 契에 吸收되는 過程에 對한 한개의 典型的인 모델이 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에 있는 다음의 設錄이라 볼 수 있다.

「江陵大都護府」 「風俗」條

「春秋敬老會……邑俗敬老, 每值良辰, 請年七十以上, 會于勝地以慰之, 判府事趙菴義之, 捐公餘米布, 立泉寶, 擇子弟勤謹者, 幹其歛散, 以爲會資名曰青春敬老會, 至今不廢, 雖僕隸之賤, 登七旬老皆許赴會」

이 「青春敬老會」는 後의 契인 것은 이미 앞서 그 實證을 든바 있거니와 또한 陽村權近 「權村集」의 「耆英會」·「耆老會」(亦是契의 組織)와도 有關하며 또 「寶」가 「會」와 關聯되어 있으니 李朝의 契가 本質的으로 自治的 機能以外에 殖利的 機能을 가졌다는 것이 「寶」의 「存本取利」와 同一한 機能을가짐으로써 「契」안에 寶를

註 ⑧ 太宗實錄 卷之十七 472面 (朝鮮王朝實錄)

註 ⑨ 世宗實錄 卷之二十六 639面 ( )

註 ⑩ 世宗實錄 卷之二十七 660面 ( )

註 ⑪ 世宗實錄 卷之三十六 69面 ( )

吸收하여 나아갈 수 있는 社會的 關聯임을 認識할 수 있는 것이다. 高麗時代에서는 財政政策의 하나로서의 高利政策의 施行過程에서 그에 對應하는 下部農民들의 「存本取利」=「殖利性」으로 變遷된 것이 李朝時代에서는 下部農民層에서의 「存本利息」이 高麗朝에서의 性格을 이어 차라리 「殖利性」을 基盤으로 社會全面에서의 「高利性」으로 옮겨 가는 方向으로 展開되었으며 「寶」의 位置는 高麗朝에서 財政政策으로서의 高利的支配의 一翼을 擔當한 것이었으므로 一般的으로 일컬어진바와 같은 救貧的, 悵恤의 性格은 實은 그의 派生的機能에 지나지 않는다.

前資本主義段階에 있어서의 收奪이 原理原則性이 없다는 事情은 「寶」의 規定을 「殖利性」=「高利性」으로 얼마든지 變貌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이와 같은 問題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非但 一個의 社會組織으로서의 「寶」의 問題가 아니라 그것을 包攝한 社會經濟體制 및 政策에 依한 上下의 社會關係와 統一的關聯性을 가진 것으로 契의 成立은 이러한 點에서도 李朝時代에 局限해서 究明될 수 없다는 것이다.

「寶」의 機能的規定인 「存本取息」을 앞서 든바 있는 契의 機能規定인 「『存本』·「生殖」』 또는 「本色取息」·「樹本取息」 그리고 丁若鏞의 「牧民心書」에서의 「合錢取利者名之曰契」 李圭景의 「相會殖利者，謂之契也」(五洲衍文長箋散稿，香徒辯證說) 등의 規定과 比較하면 完全한 機能의 符合을 이루고 있음을 發見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問題될 것은 「契」=「會」가 「契會」로 또는 「會聚」·「契聚」·「結聚」의 諸概念의 內容으로서 오늘날까지 如何히 民間習俗 가운데 남아 있는가에 對한 實證的解明이 必要할 것 같다.

### 三. 「會」 또는 「會聚」로서의 「契」—實態調査

(1961年)를 中心으로—

「契」가 「會」였다는 것은 오늘날 民間에 남아 있는 「契」와 같은 「團體性」乃至 「結合組織」의 包括的實態調査를 通해서 立證된다면 「契」의 團體性에 關한 理解를 더한층 深化할 수 있을 것이다.

李朝時代에 編輯된 「漢韓清文鑑」에 依하면 「會」를 「뭇고지」라 하였다. 오늘날 地方에 남아 있는

① 「뭇고지」……漢韓青鑑卷九·僧道部二則\*

② 「모꼬지」……신기철·신용철 편저 「포준국어 사전」: 법조사·「큰사이스 우리말 사전」: 동아출판사·「국어 새사전」

③ 「뭇거지」……李相和·詩「나의 寢室로」의 첫句節

註 ② 「漢韓青文鑑」僧道部二則, 「會」 延禧大學校東方研究所刊 1956年, 254面

④ 「먹고지」……慶南咸安郡 및 그附近

⑤ 「먹거지」……淸道郡

등의 諸語彙는 그 團體性 (=「會」)에서 뿐만 아니라 機能에 있어서도 「契」와 같은 것임은 極히 興味있는 일이다.

「文鑑」에는 「會」——焚香하는 곳고지.

로 되었으며 「焚香하는」佛教의인 뜻은 지금은 거의 消滅되어 「모임」으로서의 普遍的인 뜻으로 使用되고 있다. 이것은 現在있는 諸辭典中에서

「모꼬지」——「여러사람이 놀이나 잔치 그밖의 일로 입모」(前掲 신거철·신용철 편저 「표준국어 사전」 (472面)

이라고 한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에 關해서는 「모꼬지」란 말이 「모」(稻苗)를 논에 衆人이모여서 다 같이 꽃는 데서 由來된 單純協業的 「모임」을 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지금은 아직 斷定을 내릴수 없다. 表現力에 있어서 가장 敏感한 詩人들 中에서 「먹거지」를 말한 한분은 李相和氏이며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먹거지에 다니노라.

疲困하야 돌아가련도다』——(「나의 寢室로」의 첫 句節)

라고 한데서 發見된다. 이것 亦是 위의 「사전」에서 나타난 뜻과 같고 바로 모임 =「會」=契會인 것이다.

慶南(咸安郡附近)地方에서 말하는 「먹고지」는 飲食을 다같이 먹는 (놀이)다는 뜻으로 認識되어 있다.

「모임」이란 「集團性」 또는 「團體性」에서 볼때 이 「먹고지」以外에도 「드일리」·「더리」·또는 「머리」乃至 「데일리」이라고 하는 會聚가 있다. 이 「會聚」가 바로 「회취」·「회추」 또는 「혜추」 「혜치」 「혜초」 等等으로 轉訛한 諸形態로 나타나 있으며 이것과 「드일리」와는 그 機能에 있어서 「契」와 같고 곳에 따라서는 「혜추」를 屋內에서의 女子集團에, 「드일리」는 野外에서의 男子集團에 (昌寧咸安) 固定하는 수도 있기는 하나 實態調査의 結果는 그러한 區分이 特殊한 境遇에만 該當되고 一般의으로는 男女의 性別, 場所의 差異에 아무런 關聯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들어났다. (調査表內의 金泉의 夫婦회추; 高靈의 男女 共同的 회추·드일리; 淸道の 男子회추; 慶州·尙州의 男女同一의 회추 等等). 「會」는 「集合」으로서의 「모음」·「물」 (元來는 모르)<sup>③</sup> 또는 「모임」이므로 「聚」와 같고 會=聚=會聚는 가장 普遍的인 形態를 取하고 있고, 「두레」·「뫼갯」·「마지」等 各種의 團體性的 表現과 아울러 主要한 位置를 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機能은 契의 그것과 完全히 合致된 것이니 앞서 말한바 있는 契=會가 現在에서도 廣範한 團體概念的 體

註 ③ 李丙祿, 「古代南堂考」 1954年 3月, 서울大學校論文集 第1輯 6面以下

系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認識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韓國의 團體性은 그 異質的인 名稱에도 不拘하고 同一系로서, 把握할 수 있는 單純性까지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수 있다. 다만 여기서 契=會를 中心으로 「會」에 關聯된 또는 契에 關聯된 分野를 中心으로 하겠다.

그런데 「契」를 오늘날 「계」·「계」·「기」·「괴」·「귀」·「지」·「제」等으로 發音하고 있다. 이것을 「계」-「기」系와 「제」-「지」系로 二分하면 이는 地方의 方音에서의 「기」音과 「스」音의 互轉 乃至 轉訛關係에 依한 것으로 生覺할 수 있고, 또 「제」=「蟹」가 「기」·「괴」·「귀」로 變化하는 것과 같이 「제」(=契)가 전혀 同一한 發音上의 變化를 나타낸다는 것도 이미 國語學上 알려져 있는 事實이고 보니 「계」-「기」系나 「제」-「지」系나 할것없이 모두 「제」에 集中될수 있으며 다른 어떤 語彙에서 「계」音이 나타난 것으로 볼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契」=「會」=「會聚」로서 「會聚」가 「契」의 實體로서 널리 普及되어 있고 契의 團體性和 機能을 다 같이 한다고 할때 問題될것은 「契」(계)와 會(회)및 會聚(회취)인 것이다.

이와같이 問題를 集約化해서 본다면

① 「會」(회)에서의 二重母音의 相衡을 調和하는 法則性에 따라서 「회」가 恒常 「혜」 또는 「해」로 轉移될 수 있고 言語學上 이미 이 母音調和法則이 適用되는 時代範圍가 新羅時代에 漢字가 들어왔을때까지 溯及할수 있다고 하니<sup>14</sup> 「회」의 變遷인 「혜」 또는 「해」의 系列이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 反面에,

② 「기」音과 「히」音의 互轉, 그리고 古代에 溯及할수록 H音보다 K音이 支配的인 것이라는 것이 證明된 오늘날의 結果에 비추어 「契」=「會」 또는 「會」=「聚」=「會聚」가 基本的으로 「회」=「혜」=「해」→「계」=「제」音을 나타냈으며 高麗李斯에 이르러서 K音의 分化로서 契=계·「키」(字會)로 「會」는 「회」·「혜」·「해」의 H音系로 區分되어 實際적으로 쓸때는 「會」를 「契」와 같이 한것이라고(李朝時代) 概觀되는 바이다.

이 것은 오늘날의 「契」團體性的 實態調査의 結果가 그를 더욱 明白히 實證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實態調査는 慶北道를 中心으로 一部慶南道에 걸쳐 50歲以上の 高齡者를 對象으로 그들의 젊었을때와 오늘날의 그 地方에 있는 契의 名稱및 機能을 調査한 것이며 本來意圖한 바는 李朝末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契文獻上에 나타나지 아니한 一端을 캐내려고 한데 있었다. 여기에 한가지 附記할 것은 契가 會로 表示된 것은 日帝時代에 그리 많지 않으며 單一한 名稱으로 부를때는 거의 一般的으로

註 14 李崇寧, 「音韻論研究」 1956年 104面, 160面.

「契」만을 使用하여 왔다. 그 가운데서도 쯔혀 「會」로 表示된것이 없지 아니하니 다음의 事例가 그 것이다.

民事回答彙集<sup>9</sup> (朝鮮總督府中樞院, 1933年 12月)에

門會의 決議의 効力에 關한 件 (1920年 2月)

(回答)

一. 門中共有의 財産을 處分하여 또는 그 管理方法을 定하기 爲해서 門長 또는 有司가 各共有者에 對해서 門會의 決議事項을 提示하여 一定한 日時에 一定한 場所에 集合할 것을 通知했음에도 그 一部分 出席하여 行한 決議는 缺席者에 對해서도 그 効力을 미칠수 있다. 缺席者가 議決後 即刻으로 異議를 말하거나 또 그 決議를 承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決議効力에 影響이 없다.

二. 門中共有의 不動産을 共有者의 한사람의 名義로 變更할것. 그리고 前所有者名義人에 通知할 것을 門會에 出席한 한사람에 委託함을 議決하여 受託者가 그 通知를 했을때는 그 名義變更은 慣習上 有効하다. (377~378面)

이와 같은 內容의 「門會」는 바로 「門契」 또는 「門中契」인 것이다.

文獻上 普通「契」로서 表示되었으나 옛契의 名稱으로서만 「契」를 代表할만한 「회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傳統을 一般的으로 볼수 있다는 것과 이 調査에서 大邱市를 記錄하지 아니한 理由는 大邱自體가 慶北道內의 各地方의 方言의 集中된 곳이기 때문에 그모든 模型이 여기에서 再發見된다는 特殊性에 依해서 除外되고 있다는 것을 注意하여야 한다. 爲先實態調査의 結果를 한개의 表로서 綜合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表에 따라서 그 內容을 分類하기로 한다.

契에 關한 調査

調査年月日 1961年6月—8月

調査地域, 慶尙北道(一部慶尙南道)

整理番號	(1)	(2)	(3)	(4)	(5)	(6)	(7)	(8)
調査地名	金泉市	星州郡	永川郡	高靈郡	清道郡	清道郡	尙州郡	述日郡
項目	南山洞	星州面	清道面	高高靈面	華陽面	清道面	尙州面	述日面 義昌面
契名	옛契 회취	기		계취 드일이	契	지추 회초	지추	회취 (會催)
稱	現在契 회취	기	기·지추 드리 (머리) 산통	계취 드일이	契	지추 회초	계추	
契外類似한 組織名稱	부부회추 (野外)	새이 기 초물기 친		담, 개, 외, 수막, 술, 머 국수...드일이		男子회초		

註 ⑨ 民事回答彙集(1933年12月)이란 冊은 隆熙三年(1909年)부터 1933년까지 舊韓國法典 調査局, 朝鮮總督府取調局, 同參事室, 및 中樞院이 官廳의 照會에 對하여 發한 民事 慣習에 關한回答을 收錄한 것이다. 그의 377~378面

機 能	親睦			親 睦	親 睦	親 睦	爲殖宗 親產中	
普及年代		李朝때부터		約 100年前	約70年前		李朝末에 는 確實	李朝中葉
組織人員	50人, 20人, 10人	30人, 20 人, 새이 기-24人	3, 4人- 5, 6人		15人以上			
두레와의 差 異			두레 없음	없 음			部落에 파 라갈 行	
備 考				제 취-男子, 집 안 회 취-男女, 野外 드일이-男女野外		지 취=櫻 會		

整理番號	(9)	(10)	(11)	(12)	(13)	(14)	(15)	(16)	(17)
調査 地名 項目	高靈郡 高靈面	昌寧郡 大合面	清道郡 伊西面	達城郡 유가면	星州郡 龍岩面	清道郡 강남면	達城郡 유가면	達城郡 多斯面	清道郡 楡川面
契 名	에 契	지	산 통	지 추		기	회 추 못고지	지 추	지 추
契 稱	現在契	기 추 회 초	산 통	지 추	지 추	일 수	회 추 못고지	지 추	지 추
契와類似한 組織名稱	회 초 燈 지	회 추(女) 드일이 (男女)			문중기추 동우기추	장치기	술목고지		
機 能	貸 付 그利息 로써親睦	會 食						親 睦	相 扶 互 助
普及年代				約4, 50年 前	李朝때 부 터	40年前		約 120年 前	約40年 前
組織人員	約20人	20人- 10人	10人	15人	20人			20人- 30人	20人- 30人
두레와의 差 異	두레없음								
備 考						맞이라고 도한다 (10人)			

整理番號	(18)	(19)	(20)	(21)	(22)	(23)	(24)	(25)	(26)
調査 地名 項目	慶州市 龍江河	永川郡 암고면	禮泉郡 禮泉邑	慶山郡 河陽面	尙州郡 靑里面	漆谷郡 漆谷面	漆谷郡 漆谷面	清道郡 華陽面	慶州市 寶吾里
契 名	제 중 (契中)	회 추 뒤일이	해기 조중	드일이	회 초 제	기 추	지 추	지 추	제
契 稱	現在契	제 중	회 추	해기 초	제	기 추 (契聚)	산 통	제 추	제
契와類似한 組織名稱					男女同一				
機 能	相互扶助 親睦	親 睦	親 睦	親 睦	親 睦				



普及年代	約50年前	李朝 때 부 터	約30年前		約50年前	李朝 때 부 터				
組織人員	10人— 15人	無制限	10人— 20人		300人(過 去) 60人 (現在)	5人以上	5人— 10人	10人— 30人		
두레와의 差 異										
備 考										
整理番號	(27)	(28)	(29)	(30)	(31)	(32)	(33)			
調査項目	漆谷郡 枝川面	金陵郡 아포면	義城郡 龜川面	盈知 德品 郡面	奉 化 山 山 면	聞慶郡 加恩面	昌寧郡 大合面			
契名	옛契	기 산 통	親睦會 爲親契	모 세 동	뒤 리	회 취 초	히 추 일이			
契稱	現在契	기 산 통				회 초				
契와類似한 組織名稱	상포기			장 제						
機 能	相互扶助									
普及年代							約30年前	50年前		
組織人員	7人—9人 —13人		23人				無一定數			
두레와의 差 異										
備 考			1人當白米 1升으로契 資金으로함	장제—곡물을 貸與하고欸收 매倍量을받음	○꽃웃(草宴)共同 作業 ○영마지共同作業					
整理番號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調査項目	淸道郡 淸道面	達城郡 유가면	星州郡 龍岩面	慶州市 龍江面	居昌郡 北上面	達城郡 多斯面	善山郡	陝川郡 雙冊面	達城郡 河濱面	達城郡 유가면
契名	옛契	귀 추 지 추	못고지 추	契 中	못고지 음	회 개 기	추 추 會	회차 메일이	해 준 보기	드일이지
契稱	現在契									
契와類似한 組織名稱										
機 能										
普及年代										

組織人員									
두레와의 差異									
備 考									

# ○ 옛「契」의 名稱의 分類

## 第一群 「회취」 (=會聚)類

- (A) 회취……………㉔ 聞慶
- (B) 회주……………① 金泉, ⑮ 達城, ⑲ 永川, ㉑ 達城, ㉔ 聞慶
- (C) 회주(또는 회추) ……⑩ 昌寧, ㉓ 昌寧
- (D) 회초(또는 술초) ……⑥ 淸道, ⑨ 高靈, ㉔ 尙州, ㉔ 聞慶, ④④ 善山
- (E) 회차……………④④ 陝川
- (F) 회초……………㉔ 醴泉, ④② 達成
- (G) 회회(또는 會催) ……⑧ 迎日
- (H) 회치……………咸安(表外 調査)

여기서 「회」·「술」가 「회」·「히」·「헤」·「혜」로 轉訛表示되어 「취」[聚]는 「추」[최]·「초」·「차」·「치」로 轉訛되어 있다. 이것은 모두 「會」=「會聚」=「모을」·「모으」等 「모임」의 (集盟) 뜻의 轉訛된 것이라고 볼수있다. 또 「회」[히]·「혜」·「헤」는 「리」·「기」·「제」·「계」와 對應關係에 있음도 알수 있는 일이다.

## 第二群 제취 (=契聚)類

- (A) 제취(또는 제추) ……④ 高靈, ⑦ 尙州, ㉑ 達城
- (B) 제중(契中)……………⑮ 慶州, ㉑ 慶州
- (C) 제 또는 계……………⑤ 淸道, ㉔ 淸道, ㉔ 慶州, ㉔ 金陵

여기서는 「제」·「계」로 또 「聚」=「취」·「추」는 「中」으로 나타나 있으나 뜻은 같다. 慶州有志의 말에 依하면 普通 「제중」의 「중」에는 「衆」을 使用하지 않고 「中」을 使用한다고 한다.

## 第三群 「계」의 轉訛로서의 「기」 또는 「리」類

- (A) 기……………② 星州(세이기, 초통기), ③ 永川, ④④ 淸道, ⑤⑤ 醴泉
- (B) 귀……………㉔ 淸道
- (C) 기추……………⑨ 高靈, ⑬ 星州, ㉑ 達城
- (D) 기중……………㉔ 醴泉
- (E) 기추……………㉔ 漆谷

이 部類에서는 「契」=「계」가 「기」·「귀」·「리」로 單純化 또는 轉訛하여 「기」·

「귀」·「기」로서 獨立된 形態와 그 밑에 「聚」·「中」字를 붙인 것의 두가지 가있다. 따라서 「契」=「契聚」·「契中」의 表現이며 第一群과 比較하여 보면 틀림없이 「契」=「會」인 것이다. 또 李朝時代의 「契合」·「結聚」·「結契」·「契會」와 모두 一貫된 團體性的의 意味를 表示한 것이다. 또 「기」는 「지」와 對應互轉한다.

第四群 「지」 또는 「지추」類

(A) 지……………⑨ 高靈

(B) 지추……………⑦ 尙州, ⑫ 達城, ⑬ 達城, ⑭ 清道, ⑮ 達城  
⑯ 星州

(C) 제……………⑩ 盈德

第五群 其他 契類

산통

일수

모듬 (⑩ 盈德)

모음 (⑪ 居昌)

前二者는 「契」機能의 一種類를 가지고 「契」全體의 代名詞로 使用된것 以外에 아무것도 아니며, 後二者는 「契」의 가장 普遍的인 團體性的의 赤裸裸한 直接的 表示인 것이다.

第六群 「契」=「드일리」 또는 「테일리」類

(A) 드일리……………④ 高靈, ⑩ 昌寧, ⑪ 慶山, ⑫ 達城

(B) 더일리……………⑩ 昌寧, ⑪ 昌寧

(C) 테일리……………⑫ 陝川, 咸安(表外調査)

(D) 뒤일리……………⑬ 永川, ⑭ 奉化

(E) 머리(드리)……………⑬ 永川 達城玄風(表外 調査)

「드일리」에는 「닭드일리」 「개드일리」·「외드일리」·「수박드일리」·「술……」·「떡……」 「국수……」等等 (④ 高靈)과 같이 會聚하면서 먹는 主飲食의 種類에 따라 그 個別의 名稱이 定해진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것은 주로 男子에 局限된 地方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一般的인 形態가 아니고 보니, 이것은 本來 男女의 區分이 없는 集團性表示로서 把握함이 妥當할 것이다.

그 理由의 하나는 먹는主飲食으로써 男女의 性別을 區分한다는 것은 本來不可能하며 따라서 男子集團, 女子集團을 뚜렷이 分別 못하는 것이다. 「드일리」의 語源이 무엇인가는 알수 없으며 文獻上으로도 보기 힘든 것으로서 이 이상 追求되지 아니 하나 지금의 機能과 形態는 契와 같은 것이며 또 틀림없이 團體性을 表示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第七群 「契」=「會」=「못고지」類

- (A) 못고지……………⑮ 達城, ⑯ 星州, ⑰ 居昌  
 (B) 모꼬지……………現國語辭典  
 (C) 목저지……………李相和詩의 一句  
 (D) 먹고지……………咸安(表外調査)  
 (E) 먹저지……………淸道(表外調査)

이에 關해서는 이미 說明한바 있으므로 省略하겠다.

#### 第八群 特殊한것

- (A) 풋굿(草宴)……………㉒ 奉化  
 (B) 마지……………⑭ 淸道, ⑬ 達城, ㉑ 奉化

여기서 注意할것은 「모임」·「모듬」以外에 「會」의 訓으로서의 原義와 옛形式으로 一部나마 남아 있는 것이 「굿」과 「마지」이다<sup>9)</sup>. 그러나 오늘날은 契의 現狀과 같이 그 變動에 따라 俗化되어 그 以上을 實態調査面에서 캐낼수 없었다.

以上과 같이 實態調査를 通해서 觀察할때 「契」가 가진 團體性으로서의 名稱은 「契」=「會」를 中心으로 「會」에 集中되고 있는 反面 「會」가 가진 廣汎한 團體性的 脈絡 있는 諸形態를 찾을 수 있으며 거의 그 機能과 集團性을 같이한 特殊名稱으로 分類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韓國의 團體概念에서 占하는 契의 概念이 가장 中核的인 位置에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 四. 「契」=「會」의 文獻史的考察

이와 같은 「契」=「會」를 歷史的文獻에 따라 더듬어 보면 그 大略을 把握할 수 있다.

- (A) 會—못고지(前揭漢韓淸文鑑)  
 (B) 尼會曰승게者僧劫也僧有大中小三劫(東言考略)  
 (C) 稷會……然其會者乃鄉里聚會也(前揭乙卯甲申稷錄1629年)  
 (D) 前揭한바 있는 李朝契帖에서의 契=會(省略)  
 (E) 眉巖柳希春의 眉巖日記草 안에

(가) 日記草(二) 381面

「庚午九月初七日……任尹君聘簡請十六日爲及弟同年會會于其弟云……」

(나) 日記草(二) 386面

「庚午九月十五日……以今日丁酉司馬同年榜會故也……」

(다) 日記草(四) 71面

註 ⑨ 崔南善, 「不成文化論」 1939年 9月 51面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1961年 5月 234~237面=天說, 同一한 內容은 震檀學報 第17號 1953年 10月 同人의 「時用鄉樂譜歌詞의 背景의 研究」에도 있음.

「癸酉八月十七日……我國之俗內自都下外暨鄉曲皆洞隣之契香徒之會…」  
(타) 日記草 (四) (119~120面)

「癸酉九月二十七日在南宮判書讓鄉約啓草于余，余口占，令佐郎韓準書之，其辭曰鄉約之書固化民成俗之要，但我國之人生理氣習與中國不同，若欲行之，必須刪繁就簡，使合於土俗，以爲久遠之規，蓋我國土瘠民貧，艱於衣食，勞於賦役，若令每月一會，則勢所難勘，當令累朔而一會果酒麪飯之設非貧者所能辨只令酒一卮或飯一器，務從簡約，貧者勿設酒食只聽約束者之飲食，外方人居疎密不齊若令遠村之人一處聚會則不無勞弊當以附近而相會…」

(타) 日記草 (四) (270面)

「甲戌二月十四日……希春又言於上曰鄉約全規則固當時而行之其中一事簡便無弊而有補於化民成俗故謹啓達 臣謹接鄉約之儀同類相接有五等……蓋長幼之序爲重又云凡會者皆以齒若有異爵者雖鄉人亦不以齒此又以朝廷之爵爲重。」…

(타) 日記草 (五) (321~322面)

「重陽日族會……今日重陽會眞嫌菊未開，吾兒雖未戰猶勝白衣來」

(F) 高麗時代에서는 文武契(毅宗때 1147~1170年) 燈下不明契(高麗末)가 있었고, 陽村, 權近別集에 新羅의 「嘉俳契」의 表現도 있었으나 陽村集에 보이는 것은 「契」가 아니라 「會」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을 뿐더러 이것은 高麗의 權大尉雙明齊 崔謙(1136~1212)<sup>17)</sup>에 까지 그 源由를 溯及할 수 있는 根柢를 提示하고 있다. 이 「會」가 設令 中國의 唐·宋의 「會」를 模倣하였다고 하나 契의 構造를 가지고 있음은 李朝時代의 特히 親睦的인 團體에서 觀察하는 것과 같다. 그 各各의 文獻은 다음과 같다.

(가) 文武契

「庚資諒年十六與儒家子爲交契，引吳光陟李光挺等與焉，衆莫肯之，公慨然曰雖私遊中文武俱備亦得矣，遂使之參，未幾庚寅鄭仲夫之變起文臣萬盡，契中皆得免以吳李營救甚力也」(誌序)

(權文海, 大東韻府群玉(1560~1591) 卷之十四, 1950年5月刊(424~425面))

(나) 陽村 權近別集

「羅俗仲秋修嘉俳契事」

(다) 燈下不明契

「李良景稱善牧隱之子，權總制踐陽村之子，總制醉謂良景曰君爲牧隱之子而

註 17) 雙明齊 崔謙(1136~1212)

○ 雙明齊—「平章事崔謙年未耋老致仕上章乞退開所居齊於靈昌里中名曰雙明常爲耆老會(麗史) (大東韻府群玉 卷之三 88面)」

○ 九老會—崔謙與弟誥及趙通等八人爲九老會(群玉卷之十四, 434面)

文章不足，我爲陽村之兒而文名又不及，君與吾當作燈下不明契聞者皆笑」(筆苑)

(權文海，大東韻府群玉 卷之十四 425面)

그러나 權近의 「陽村集」<sup>18)</sup>에서는 「契」는 보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耆老會」「耆英會」를 볼 수 있다.

(라) 陽村集卷之三 17面

「入直間兩府耆老會議之事感嘆而作」

盜賊踰□紀風塵暗四方詢咨庭議衆經濟廟謨長諫職空□□憂旅□結腸可伶邦  
本瘁須要撫黔蒼」

(야) 陽村集 卷之十九 (12面)

後耆英會序

「耆英會尙矣，唐之白樂天，宋之文潞公俱有洛中之會當時稱美作圖以傳之，吾東方在前朝時大尉崔公謙，號雙明齊與其士大夫之老而自逸者亡人慕二公之事始爲海東耆英之會約每月逐旬一集惟以觴詠自娛語不及 臧否得失厥後踵而繼之者爲佞佛之席至使老者僕僕而函拜殊失君子知命不惑優游自樂之意矣，今領司平府事 西京府院君 李公閱家中舊書得其先人所藏雙明齊耆老會圖序慨然嘆慕邀一時之有勳德重望爲衆所尊者十人爲會約自今七十已上德爵俱尊者方許入會…此會其交相敬愛雍雍油油以同 其樂和氣從容禮意 周洽培養國家之元氣於此可觀 自今此會之相傳當與我國祚同垂於罔極也

夫永樂三年三月 日(1405年=李太祖建國後13年㉔)

會自

檢校議政府左政丞權億 八十六領議政府事致仕權仲和庸天 八十三領議政府事致仕李舒陽伯七十三 議政府右政丞成石璘自修六十七 嚶與府院君閔震仲晦六十六 上洛府院君金士衡平甫六十四領議政府事趙浚明仲五十九議政府左政丞河崙仲□五十八領司平府事李居易樂天五十七領承樞府事李茂教夫五十

會約序，齒不序官爲□務，簡潔食不過五味菜羹醢醢之類不過五器酒魚等深淺自斟主人不勸客亦不辭微醺爲度召客共用一簡客注 可否於字下不別作簡或因事分簡者廳會日早赴不待促， 每月以次辦會當辦者有故次者先辦掌約者六月一遞違約者每事罰一巨觥」

(바) 陽村集卷之三十五 (6面)

蔡贊成諱洪哲

「……忠惠王庚辰年七十九卒，公於文章技藝醫藥音律皆極其精而尤深於釋教 嘗於第北置別院養僧施藥時呼活人堂又於第南作堂呼中和時邀國老爲耆英會…」

註 18) 權近, 「陽村集」1937年3月 朝鮮史編修會編, 朝鮮史料叢刊 第13,

이 權近의 「耆英會」·「耆老會」의 內容은 바로 契의 組織인 것이다. 上流階級에 있어서의 親睦的인 「契」나 「會」는 「契」歷史上에 있어서 李朝時代에서의 「契」=「會」를 能히 立證하여 주는 것으로 볼수 있는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會」가 新羅朝에까지 溯及 될수 있는 根據를 여기서 잡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契」=「會」는 非但親睦的인 것에 限하지 않고 앞서 말한바와 같이 「寶」-「會」-「契」의 殖利面에서도 變遷의 重要契機를 이루고 있으니 (前揭東國輿地勝覽)·殖利的機能을 中心으로한 다른面에 對한 觀察을 可能케하며 이는 高麗朝에서의 有力한 財政政策의 一翼을 形成한 (「寶」를 包含한) 高利政策이며 上層構造에서의 이 政策은 必然的으로 下層構造의 共同體에서의 殖利의 性格의 (高利性에 對應하는) 集團性이 나타나지 않을수 없음은 그 社會經濟的構造에서 源由되는 것이며 이 高利政策이 商品生産을 土臺로 한것이 아니라 自然經濟를 土臺로 했고 農民의 生活과 直接한것이고 보니 이러한 上下를 通한 團體의 性格의 維持와 그 內部에서의 새로운 形態의 形成은 封建體制의 基本的條件인 것이다. 農民層에 있어서의 殖利의 形態의 形成이란 點을 通해서 그 밑바닥이 되었던 古代의 團體性을 新羅時代에서 보면 다음 文獻이 示唆하여주는 바 크다.

(G) 新羅時代의 嘉俳에 關하여,

(가) △「八月十五日俗稱嘉俳，今訛爲가위謂此時菲菜皆嘉也，△毛西河詩話曰新羅國王以七月望日勅王女帥六部女子會續于廣庭至八月望日課其工負者設酒相與歌舞謂之嘉俳有一女起舞爲會蘇之歌會蘇之名始此」

(傾隱 李義鳳著，(正祖 때 사람)，「東韓譯語」<sup>19)</sup>

(나) 「今俗以八月望日爲嘉俳節日者羅俗會續于內庭至八月望考其多寡酒食歌舞謂之嘉俳宴」<sup>20)</sup>

「嘉俳」即 오늘의 「가위」가 李朝時代에는 「가위」였으므로 그것이 短縮化해서 「제」로 되는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해서 그런 音의 變化가 다른 反面 어떤 團體性의 뜻을 明白히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그런것은 없는것 같다. 차라리 「嘉俳」自體가 가진 것은 「會續」의 「會」에 있는 것같으며 李五洲의 考證이 前二者의 解釋과 같이 基本的으로 「會」를 表示한것으로 볼수 있다. 이런 方向으로 생각을 돌리게 된 것은 「嘉俳宴」의 表示가 直接的으로 史料에 보이지 않는데 基因한다.

「五洲衍文長箋散稿卷三十七」의

『上元藥飯秋夕嘉會辨證說』에

『……秋夕即八月十五日之名新羅史七月望日王使王女率六部女子續於廣庭八月望日

註 19) 東國大學校「國語國文學資料叢書 第四輯」「語源資料集成」(上) 22面

註 20) 東國大學校「前揭書」(中)

註 21)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卷三十七 東國文化社刊 下卷 122~123面

乃考其上負者設酒與歌舞謂之嘉俳會一女起舞爲會蘇之歌仍以爲名辰曰嘉會……上元曰大望秋夕曰漢嘉會……」<sup>21)</sup>

以上에서 보는바와같이 「嘉俳契」로서의 表現은 「陽村集」에서나 李朝의 「嘉俳」를 辨證한 學者들의 記錄에서나 거의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當時 「嘉俳契」라고 하였는지 疑問인 것이다. 이들 文脈에서 表示된 「會」는 三國史記 雜志 色服條에 나타난 다음의 記錄과 比較할때 特히 漢字가 들어온 以後의 韓國의 團體性의 表現이 어퍼렸는가를 示唆하여 주는 것으로 본다.

「冊府元龜云, 高句麗其公會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皆着幘如冠幘而無後, 其小加着折風形如弁」<sup>22)</sup>

이 「公會」는 三國志魏書, 東夷傳 高句麗傳의 다음 記錄과 比較할때 그 內容을 알수 있다.

「以十月祭天國中大會名曰東盟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大加主簿頭著幘如幘而無餘其小加着折風形如弁, 其國東有大穴名隧穴十月國中大會迎隧神……」

따라서 「其公會」는 東盟을 말하는 것이며 十月에 新穀을 感謝하여 穀靈과 氏族神靈을 祭祀하는 儀禮인 것이다. 이公會는 좀 더 範圍를 넓혀서 생각한다면 扶餘의 迎鼓, 高句麗의 東盟, 濊의 僞天 三韓의 農事神祭 등이 모두 公會인 것이다, 「會」의 表現이 여기에 까지 이룬다면 十月이란 一特定時期에 있었던 祭祀만 아니라 첫째 共同體의 基本組織이며, 둘째 生産關係와 氏族體制를 維持한 中心의 信仰과 結合한 組織으로서 (穀靈및 祖靈信仰의 合一) 解明될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追加해 들 것은 權文海의 「大東韻府群玉」 卷十四 (424面)의 「九干修禊」에 關한 것이다.

九干修禊——「駕洛國初九干等修禊飲適見龜峰有異氣, 六金卵自空而下皆化爲男以其始見者爲主又見卯」<sup>23)</sup>

이 文章에서 「禊飲」을 가져고 「禊」의 一種으로하나 차라리 三國遺事卷第二 駕洛國記의 原文을 통해서 볼때 그것은 「契」란 表示보다도 「集會」·「聚集」·「踴合」이란 表現 그대로이며 「會」의 內容을 意味한것 以外에 아무것도 아니다.

駕洛國記

後漢世桓光武帝建武十八年壬寅 (西紀42年)三月禊浴之日所居北龜皆有殊常聲氣呼喚衆庶二三百人集會於此有如人音, 隱其形而發其音曰此有人否, 九干等云吾 徒在…翌日平明衆庶復相聚集開合…」<sup>24)</sup>

註 22) 「三國史記」卷第三十三, 雜志第二 色服條

註 23) 權文海, 「大東韻府群玉」卷之十四 424面 (正陽社刊 1950年5月)

註 24) 「三國遺事」卷第二 駕洛國記



가장 興味있는것은 契의 最初の 記錄인 三國遺事 卷第五, 「郁面婢念佛西昇」條의

「景德王代(742~764年)康州善士數十人志求西方, 於州境創彌陀寺約萬日爲契」의 記事中 「契」에 對해서 李丙燾博士는 그의 『原文并譯註 三國遺事』의 譯篇에서 「萬日을 期하여 契(會)를 하였다」<sup>25)</sup>라고 註를 붙였다. 아무런 解說도 根據도 없이 이와같이 契를 「會」로 한것이나 이것은 나의 위에서의 指摘을 통해서 본바 「契」=「會」의 諸事例와 合致되는 것으로 그런 意味에서 肯定될 수 있는 것이라고 生覺한다. 또 萬若에 「契」가 「會」라면 이 記事에서의 內容은 萬日契=萬日會가 될 것이다. 著者が 이때까지 調査한바 가장 最近의 「萬日會」의 記錄은 現在하는 京畿道廣州郡 奉恩寺境內의 碑面(1941年建立)에 있는 것이며 거기

表面——「萬日會大功德主白性郁博士紀念碑」

裏面——「博士興天寺故荷翁大禪師高弟也法物全部納於萬日會……」

이 「萬日會」는 新羅의 『萬日契=萬日會』의 內容과 契=會의 內容을 (때로는 裏面文章을 통해서는 「寶」의 內容까지도) 實證하여 주는 것이라고 본다.

## 五. 「會」의 音과 原聲

「會」가 언제부터 「契」로 되있는가의 問題를 考察한다는 것은 國語學史上的 綜合的인 音韻體系의 完成을 前提해야만이 解決될수 있는 것으로 容易한 일이 아니며 더욱이 時代的인 言語體系를 갖지 아니하고 斷片的인 語源關係를 따진다는 것은 一種의 冒險을 免치 못할것이나 여기서는 이에 對한 覺書로서 적어 두기로 하겠다.

(가) 이 問題 解決을 爲한 한가지의 重要한 鍵鑰는 宋의 孫穆이 著述한 「鷄林類事」에서 採錄된 三百五十以上の 高麗方言 가운데 있는 「日曰契黑隘切」의 「契」이다. 本來는 「日曰姪」·「月曰契黑隘切」로 된 것이나 方鍾鉉氏의說에 依해서 「日曰姪」은 意味가 通하기 어렵고 「月曰契」에 있어서의 「契」字가 半切로 表示된 音이 바로 「日」의 뜻과 같이 되므로 바껴서 『日曰契黑隘(=해)』·『月曰姪(달)』로 解釋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6)</sup>.

方鍾鉉氏는

『黑 회 入聲 (通釋下 62面)

黑 허  
흑 (通釋下 22面)

註 25) 李丙燾, 「原文并譯註 三國遺事」 1956年9月 432面

註 26) 方鍾鉉, 「鷄林類事研究」, 延禧大學校, 東方學研究所「東方學志」第2輯 1955年 12月 66面

여기서 우리는 이 黑字의 初聲이 “ㅎ”임을 알수 있다. 다음은 「隘字」를 찾아 보면

隘 애 해 上聲 (通釋上 46面)

隘 애 익 (通釋上 26面)

여기서 「黑」字의 初聲인 “ㅎ”와 「隘」字에서 初聲만을 除外한 나머지 음인 “익”와를 합하여 “히”가 되므로 이것은 確實히 「日」의 意임이 틀림없다』고 말하였다. 나는 이 修正을 肯定하면서 出發하려고 한다.

日曰契<sup>黑隘切</sup>의 契音이나 「黑隘切」의 音은 모두 孫穆이가 高麗方言을 듣고서<sup>27)</sup> 國의 音으로써 表示한것은 勿論이다. 따라서 孫穆時代에 契를 如何히 發言했는가가 첫째 問題되지 않을수 없다.

康熙字典에<sup>28)</sup>

契—廣韻苦計切集韻 韻會詰計切 正韻吉計切이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契」音이 元·明 以後 오늘날까지 ch'i (치)音인것이 隋唐宋때 (廣韻) k'i (키)音으로 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同字典에도

黑—唐韻呼北切<sup>29)</sup> 이므로 「ㅎ+에 이」=헤이 로되고

隘—唐韻 集韻 正韻烏懈切 韻會玄解切<sup>30)</sup>이므로 에, 익(외)等の 音이며 따라서 「黑隘切」은 틀림없이 「해」 또는 「회」 「히」音을 갖게된다. 그러나 孫穆이가 왜 特別히 日曰契……키=해(=해)라고 하여 「契」以外에 黑隘切의 音을 붙였는가의 問題이다. 우리나라에서 日(=日)의 古音이 「개」 또는 「꺀」로 되었을때 「꺀」·「꺀」·「꺀」·「꺀」의 四音이 一連의 時代性을 內包하면서, 大體의으로 말해서 古代에 遡及될수록 「ㅎ」音이 弱하고 「ㄱ」音이 支配의으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하며 扶餘의 始祖 解慕漱및 其子 解夫婁의 「解」가 古音 「개」, 訓이 「日」이라고 볼때<sup>31)</sup> 「히아지」(日子, 太陽의 아들)가 「개아지」로되는 것도(崔南善先生·개아지朝鮮) 首肯되며 音의 發展上으로 보아서 적어도 新羅時代에서는 H音이 K音과 互轉될뿐만 아니라 K音이 H音에 앞선다고 보아야 한다.

梁柱東教授 「古歌研究」에

『히의 古音 「꺀」·「ㅎ」의 北方音이 「꺀」임은 滿蒙語의 例로도 알수 있으나 我語에도 「큰」(大)은 「한」의 轉이요 其他 「혀」(引, 點火)의 古音이 「꺀」等 類例가 많다. 「히」의 古音이 「꺀」(白의 訓「꺀」는 同一語)이기 때문에 이 말은 「히·꺀·

註 27) 高炳翊「鷄林類事의 編纂年代」1953年9月 歷史學報 第10輯

註 28) 「康熙字典」子丑集丑部下大部

註 29) 「康熙字典」玄集下黑部

註 30) 「康熙字典」酉戌集戌集中阜部

註 31) 梁柱東, 「古歌研究」1957年 3月 4面 8面

「기」三音으로 互轉되었다. 北扶餘始祖「解慕漱」및 其子「解夫婁」의 解(古音개)는 곧 「日」의 古訓에 不外하다<sup>32)</sup>고 말하였다. 따라서 古代時代의 「키·기」(=日)가 「히·기」의 系列로 分化 互轉된다는 것은 K音 또는 K音의 弱化過程에서 g音으로 그리고 hh(헉)音, h音으로 分化되는 音序列을 區別할수 있으며 그音들은 具體的으로는 一定段階까지는 相互互轉의 未分化狀態에 있었던것도 事實일 것이다. 한편 契가 中國音으로 隋唐宋代에 k'i(키)로 그後 ch'i(치)로 發音되었고 「契丹」이 「K'i Tan」였음도 一般的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다.

現在 各國語의 發音上 흔히 볼수 있는 예이지만 獨逸語發音上에서 보면 Chinesen(中國人)은 「췌네젠」으로 되어야 하나 一般的으로 「씨네젠」 또는 「키네젠」으로 發音되며 「헉」音이 「씨」 또는 「키」音으로도 互轉되는 것이다.

康熙字典<sup>33)</sup>에 依하면

會一唐韻 集韻 然黃外切 又 集韻 韻會 古外切 又 集韻 古活切 又 集韻 戶括切로 되어 있기 때문에

黃=헉, 古=ㄱ, 戶=ㅎ, ㅎ,

이므로 「會」의 中國音의 時代의 序例에서도 「ㄱ, ㄱ, 헉, ㅎ」의 互轉過程을 볼 수 있다. 이런 事例는 非一非再이나 高麗時代에 孫穆이 日(히)音을 들었을때 「히」 「키」 「기」音이 互轉의 可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거나 또는 未分化狀態에 있었던가 둘중 하나일것이라고 생각되며 實際에 있어서 日曰契(히 또는 히 그리고 키·기 또는 키)였고 다른 面에서는 日曰黑陰切(히)였던 것이다.

이러한 事情은 「會」(회)에 對해서도 適用된다면 高麗新羅時代에서는 틀림없이 ㅍ, 피, 폐 또는 ㅅ, 시, 세 또는 ㅈ, 지, 제 또는 ㅊ, 추, 추(히)音으로 되었으리라는 것은 能히 짐작 되는 바이다.

「회」는 그러나 「괴」 또는 「·」의 二重母音으로 되어있어

『母音의 「히아투스(Hiatus=母音의 衝突)을 防止하기 爲하여 當然히 存在할 「애」가 存在하지 아니하고 오직 「에」를 取하게 된것도 「에」優勢의 同一한 傾向이라고 볼수 있고 이 傾向이 龍飛御天歌에서 顯著하나 이 音調和가 李朝初期에서 부터 高麗時代에 遡及하여 母音調和法則이 強烈하였으리라고 믿을 수 있고 新羅時代까지 遡及이 可能하다」(160面)<sup>34)</sup>고 할때 (李崇寧博士) 「會(회)는 ㅈ 또는 ㅊ로 따라서 古代時代에서는 그自體가 ㄱ, ㄱ, ㄱ, ㅈ, 또는 ㄱ, ㄱ, ㅈ, ㅈ 等으로 되었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契=會가 그 團體性和 機能에서 뿐만 아니라 音韻上에서도 同一했던 時代

註 32) 梁柱東, 「古歌研究」 8面

註 33) 「康熙字典」寅卯辰集辰部上日部

註 34) 李崇寧, 「音韻論研究」 1956年 104, 160面

가 古代에서 存在하였고 또 相互互轉되어 나중에 契와 會가 各各 分離하면서 그러나 某某契를 表示할때 某某會라고도 表現할 수 있었던것으로 본다. 이러한 結果는 첫째 契나 會가 모두 漢字였기 때문에 漢文化가 들어오기 前의 固有한 團體的表現은 이것과 다르다는 點이며 둘째로는 契의 固有한 團體的表現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會」를 통해서 理解可能하다는 것으로 判斷되지 않을수 없다.

## 六. 結 言

以上으로서 「會」의 音을 考察하였으나 會는 漢字文化가 들어온 뒤의것이니 漢字「會」를 古音으로서 「계」 「케」 「해」로 읽었던것이 高麗・李朝를 겪고서 K音과 H音의 相互互轉의 段階를 통하여 契는 契대로 會는 會대로 分離하게되어 李朝時代에는 契가 一般的으로 使用되어 왔으나 契會 또는 契=會의 事例에서와 같이 混用해왔고 그 團體概念과 機能까지도 같이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漢字文化가 들어오기 前의 「會」에 該當되는 古義가 무엇인가에 對해서 나는

- ① 會=「마을」 「모을」=集聚, 集團, 群(큰 마을은 큰集團으로서 村을 말하나 村 안에 적은 마을이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 일이며 共同體가 따라서 共同組織이 强靱할수록 同質的集團性(마을)의 複合形態를 取한다—Tönnis) 모임(團體)인 反面에
- ② 共同體內部에서의 氏族의 祭祀儀禮의 集團性 即 「맞이」라고 보며 集團自體가 古代生活를 規制했다는 意味에서 그것이 祭祀를 包含한 團合이며 集團的名詞로도 될수 있다는 것은 韓國家庭에서의 「神缸」의 調査와 아울러 實證될수 있는 것이다.

祭祀를 「맞이」라고 한것은 漢韓清文鑑<sup>35)</sup>에 보이며 實態調査에서도 오늘날 契와 同一한 機能을 가진 「맞이」가 한두군데 있기는 하나 이것은 있다할지라도 古義와 關聯될 만한 普遍性이 稀薄하다.

다른 反面 「會」의 古義를 三國史記 地理志의 考證가운데 會=맞이로 解釋한 사람이 있고<sup>36)</sup> 梁柱東氏는 「會蘇」에 關한 解讀에서 (古歌研究)會蘇=「아소」의 借字라 하였으나 다시 卷末에 가서 訂正하여 會의 古訓이 「맞」이므로 「마소」로 解釋하였다.<sup>37)</sup>

契가 가진 뜻은 共同體에 있어서의 가장 包括的이면서 前資本主義의 各段階를 통해서 가장 긴 歷史를 貫徹시킨 「結合」・「會聚」로서의 團體性 以外에 아무것도 아니며 契의 오랜 存續과 그 結合性이야말로 韓國經濟史의 全過程을 통해서——가장 共同組織의 團體性이 稀薄한 오늘날의 高利契의 支配的인 時代에 이르기 까지——貫한 그 諸特徵을 代辯하는 一集約的 社會關係이다.

註 35) 漢韓清文鑑」81面

註 36) 辛允鉉, 「三國史記 地理志의 研究」(新興大學校 論文集)

註 37) 梁柱東, 「前掲書」19面 및 867面

# Historical Study on the Corporationsconception of Kō(契) as a Korean Community

by *Sham-Shu Kim*

## Summary

In Europe, there have been much controversies on the definition of Community (Gemeinde); for example, G. H. Hillery in his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In Rural Sociology xx, 1950," said that there have not less than 94 different types of definitions of the Community. So has it been the case in Korea, too. There have been 17 different types of theories on Kō as a Korean community —this number can be subdivided into 25, and more than 30 scholars, both Korean and Japanese, have engaged themselves in the study of Kō for last half century.

In Korea, however, there have been no controversies among the scholars against each other, quite unlike to that in Europe, and the research study and the conception study have always been separated. Both have failed to supplement each other, which they should do for a satisfactory study of the subject.

In order to eliminate such defects in the study and to readjust the various theories on the subject in proper order, a historical study of corporationsconception of Kō is indispensable.

According to what appears in the writings such as Lee-dynasty Kō Code (Original copy of Kō Regulations of Lee-dynasty), during this dynasty Kō was most active in the history of Korea, Kō originally meant 'Hoi'(會). The meanings of the word 'Hoi' were 'Assembly' (=Moul=Maul.) and 'Mokkoji' (Mokkoji is 'Rice-Planting', and implies 'Cooperative Work' in rice-field agriculture). However, of these two meanings, 'Hoi' as 'Assembly' bears direct resemblance to Kō in pronunciation. 'Hoi' existed in the dynasties of Chin, Han, Sui and T'ang of China as a recreational and friendship organization, and the influence of this Chinese Hoi appears in the writings of Koryo and Lee dynasties. However, the functions of Korean Kō were not limited to the recreational and friendship ones like the Chinese Hoi. 'Hoi' as one of the corporationsconceptions that the Korean Kō has, did not originate in China. It dates back fur into the ancient times of Korean society.

Besides, the word 'Hoi Ch' yu (會聚) which is widely spoken among the people in manypresent day Korean rural communities, is a provincial accent of the word 'Hoi'. The word 'Hoi Ch' yu as spoken among the present day rural communities, means 'Maul' or 'Moru' (the Japanese word 'Mura' originated from this word 'Moru'). All these words Maul, Moru, or Mura meaning village or rural community.

Kö was original name given to rural community. The name Kö remained unchanged but the community the same name Kö denominated has been changed, and accordingly the contents of Kö's conception have also experienced many changes. Kö has meant Commercial guild, agricultural cooperative union, village self-governing body, friendship and or religious society, and community chest, etc.

It can be said Kö is typical Korean community peculiar for the study of the comparative theory of community,